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북 · 중 초국경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



2016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지 역 학 과

FAN JIE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북 · 중 초국경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리 단

이 논 문 을 국 제 지 역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으 로 제 출 함

2016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지 역 학 과

FAN JIE

FAN JIE의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26일



주 심 경제학박사 서 창 배 (인)

위 원 사회학박사 예 동 근 (인)

위 원 정치학박사 리 단 (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절 초국경개발협력의 개념, 형태, 기능	16
1. 초국경개발협력의 개념	16
2. 초국경개발협력의 특징	20
3.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24
4. 초국경개발협력의 기능	27
제3절 분석틀	29
제3장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31
제1절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추진배경	31

제2절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법·정책의 정립	34
1. 중국의 법과 정책의 정립	34
2. 북한의 법과 정책의 정립	41
제3절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43
1. 두만강유역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44
2. 압록강유역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56
 제4장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기능	 63
제1절 정치·안보적 기능	63
1. 對 중국의 정치·안보적 기능	63
2. 對 북한의 정치·안보적 기능	66
제2절 경제적 기능	70
1. 對 중국의 경제적 기능	70
2. 對 북한의 경제적 기능	72
 제5장 결론: 요약과 전망	 79
제1절 요약	79
제2절 전망	82
 참고문헌	 85

<표> 목차

<표1>	12·5 계획 중 압록강유역과 두만강유역 발전 내용	37
<표2>	두만강유역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55
<표3>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개발형태	62
<표4>	북·중 교역 추이(2010~2014년)	74
<표5>	목적별 중국 북한 입국자 추이(2010~2015년)	75
<표6>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경제적 기능	76

<그림 목차>

<그림1>	초국경개발협력의 특징	24
<그림2>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26
<그림3>	분석틀	30
<그림4>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 및 황금평경제지대 위치도	44

A Study on Cross-borde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 - China

- Focused on Form and Function -

FAN JIE

Division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se days, East Asia has their interest in east province of north Korea and Chines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bigger than before. Northeast Asia Sub-Regional Cooperation that plans ranging Tumen River region development plan with wide Tumen River development plan would make great effect of the North Korea's future and Northeast Asia province alliance. this province has lots of meaning, especially political and economical parts without national strategic variable that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mpeting China with Russia, relative passivity about international alliance of Japan.

Cross-borde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China is going through a period of transition from coexistent Cross-border development cooperation to interdependent Cross-border development cooperation .

China could have national boundary stable effect in political security. since middle of the 1990, North Korea's have faced with economical isolation because of nuclear arms situation. it makes deterioration relationship with north and south Korea and restric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Cross-borde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China is expected that it could solve financial difficult and isolation problem of the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hat trust of the participated nation and also need that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North Korea and China is a friendly nation as traditionally, however, now both have difference in a wide range of the indicator such as level,

Keyword: Cross-borde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Korea-China, Tumen River,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단위에서 벗어나 지역의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된 유럽연합(EU) 및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이 국제화와 지역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지역협력체는 초국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 이익단체 등 비 국가 단체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초국경 개발협력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지역과 지역 간의 관계, 세계 체계, 그리고 지역경제일체화의 과정에서도 추진될 수 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제시한 두만강하류지역개발계획은 전통우호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관계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통사회주의 틀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중국은 거대한 경제성과를 이루었으나, 발전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에 직면하였다. 더불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비합리적인 공간구조, 과도한 토지개발, 심각한 환경오염 등은 모두 향후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지역발전계획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정부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¹⁾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와 지역 발전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서부대개발(西部大開

1) 최우길(2010), “중국 동북진흥과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개발계획: 그 내용과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p 38.

發)”과 “동북3성 진흥(振興東北3省)” 등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21세기 초반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可持續發展)”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정부는 “동북3성 진흥” 전략을 통해 전통적인 중공업중심지였던 동북3성을 다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의 종합적 국력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²⁾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정부는 국경지역의 안정과 발전, 주변국가와의 국경무역발전을 중요시해 왔으며, 국경지역에서는 주변국가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모형과 형식의 경제무역협력을 전개해 왔다. 서남지역의 윈난성(雲南省)을 중심으로 한 메콩지역개발협력은 동남아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인접국가와 연합하여 상호보완적인 초국경개발협력을 실현하고 있다. 윈난성은 이미 중국서남지역 개발의 교두보가 되었다. 동북지역의 경우, 1991년 UNDP에 힘입어 ‘두만강국제협력개발’이 두만강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협력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³⁾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2009년 11월 16일 국무원은 “동북진흥전략(東北振興戰略)”을 구체화시키는 “창지투개발개방계획(長吉圖開發開放規劃)”을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 동북3성은 북한과의 상호교류를 전제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중국의 두만강지역 개발, 동변도 철도 건설, 새로운 압록강대교 부설, 요녕연해(遼寧沿海) 지역개발 등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개발·개방구상은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경제벨트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2) 최우길(2010), 앞의 글, p 41.

3) 김천규·이상준·문정호·임영태·이건민(2013), 『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p. vii.

보인다. 4)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난 문제가 나타났고,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강행해왔다.⁵⁾ 특히 2016년 1월에는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불러왔고, 북한은 경제적 고립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경제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외국자본의 유입이 더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중국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밀착형 발전전략은 불가피하다.⁶⁾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는 북한의 경제난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현재 북한은 소비재는 물론, 에너지·식량 등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 부문에서도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⁷⁾

4) 박희진(2011), “북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의 유사성 비교: 불안정한 동북아 평화구도와 양국간 경제협력의 한계”, 『편화학연구』 2011년 제12권 3호. p.62.

5) 최수영(2012),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반도 경제』, 통일연구원, p.3.

6) 김유호,(2012),”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중국의 역할”,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교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p.40.

7)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북투자는 일부제조업 중심으로 소규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동북진행계획이 추진되고 ,창지투 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북한 지하자원 개발 위주의 대북투자는 동북3성 개발과 맞물려 북·중 양국간 접경지역 개발로 이동하는 중이다. 최수영(2012),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반도 경

최근 북한과 중국의 협력관계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대중의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인 종속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⁸⁾ 이러한 우려와 지적인 중국 경제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비롯된다.⁹⁾ 이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 개발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가져올 것이다.¹⁰⁾

북·중 접경지역은 북한과 중국이 교류하고 연계하는 지역으로서,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중 접경지역에 장기적으로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갖추어질 경우, 초국경 경제지역의 형성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¹¹⁾

EU·미주지역·동아시아 지역 등에서는 초국경개발협력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룬 반면에, 북·중 양국은 1990년 두만강개발계획을 발표 이후에도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이론에 대한 정립을 기반으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발전에 어떠한 기능을 지

제』, 통일연구원, p.4.

8) 조명철(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이정(2015),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무역관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학 석사학위논문, p.2.

10) 최수영(2012), 앞의 글, pp.23-30.

11) 김천규·이상준·문정호·임영태·이건민(2013), 앞의 글, 국토연구원, p.iii

니고 있는지 왜 기타 국가 및 지역에 비해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개발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등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북·중 접경지역, 즉 두만강하류유역과 압록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되 북한의 나선특별시, 중국의 지린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단둥(丹東)가 중점지역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1년에 UNDP가 두만강개발을 발표한 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다. 연구의 시점을 1991년으로 설정한 것은 탈냉전 이후 북한이 최초로 경제특구를 발표한 것이 1991년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 된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의 초국경개발협력 논의 역시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¹²⁾ 특히 2016년 제4차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긴장이

12) 중국의 지도자들은 제 2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전환을 결심하고 이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알렸으며 김정일은 이에 호응하여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의 정립에 나섰다. 이종석(2012),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중국 관계의 변화와 함의”, 세종연구소 ; 김수한(2014), “북중 초국경 협력의 지속과 변화 - 최근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韓中社會科學研究』 제12권 제4호(통권33호), p.106에서 재인용

깊어지고 있는 정세 하에 초국경개발협력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이끌어 그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여, 1차자료는 중국과 북한의 협력에 관련 있는 정부문서, 보고서, 각종 통계자료 및 언론 보도자료 특히 중국 외교부 사이트와 인민일보(人民网), 신화통신(新華網) 등 중국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 자료는 중국과 한국 및 기타 국가들의 연구논문, 보고서 등 자료를 활용하였다. 북한의 대외 거래 및 경제관계 현황과 관련된 자료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서술하기 위해서 한국 측의 코트라 및 KDI발간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 연구는 초국경개발협력의 이론으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을 접근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북·중 초국경개발협력 연구의 필요성과 이 논문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범위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 이론적 배경에서는 초국경개발협력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였다. 특히 '초국경개발협력'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연구를 살펴보고 초국경개발협력과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북·초국경개발협력의 추진 배경과 이러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양국의 법과 정책의 정립을 정리하였으며 현재 양국 간의 초국경협력의 진행 형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된 북한과 중국의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를 토대로 그 기능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정치·안보적 기능 및 경제적 기능 등 영역으로 전개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에 연구내용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북한과 중국 간의 초국경개발협력에 대한 전망을 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선행연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검토해보면 주로 초국경개발협력의 일반적 이론, 유럽 및 북미 등 국가의 초국경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그리고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등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초국경개발협력의 이론적 근접연구이다. Robert Scalapino는 1992년에 미국의 『외교사무(Foreign Affairs)』라는 저널에 발표한 문장에서 초국경경제협력은 “자연적인 경제영토(natural economic territories)”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그가 주장한 “자연적인 경제구역”은 정치적 경계선을 넘어서 자연적인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제시하였고 이 중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호보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정부의 행위가 포함한다.¹³⁾

중국의 학자 리티에리(李鐵力)은 “변경효과와 초국경경제협력에 관한 연구(邊境效應與跨邊界次區域合作研究)”에서 국가 혹은 지역의 국경선의 행정구역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두 가지 작용을 한다고 한다. 하나는 차단작용이다.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무역보호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이며 음성적인 표현으로는 민족 혹은 국가의 관계, 언어, 문화 차이가 가져온 커뮤니케이션 및 유동성

13) Robert Scalapino(1994), “Foreign Affairs”; ZHANG HAN(2009), “중국-죽한 소지역 경제협력구의 가능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재인용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중개 작용인데 국경선 양측은 지리적으로 인접하므로 자연과 인문지리의 연속성과 근사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근사성은 경제협력 과정의 거래비용을 대대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초국경경제협력은 국경지역의 차단효과를 중개효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잠재적인 자원우위를 실질적인 경제우위로 전환시켜 국경지역의 낙후한 상태를 변혁하고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일종의 경제협력형식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¹⁴⁾

왕성진·위샤오(王胜今·于潇)는 “두만강지역 다국적 경제협력 연구(圖們江地區跨國經濟合作研究)”¹⁵⁾에서 다국적 경제협력은 구성원국의 제도, 체제, 정책 등 면에서 존재하는 차이점을 승인하는 상황 하에서 가능한 조정을 모색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정치경제체제, 경제발전수준, 의식형태 등 각 면에서 선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지역적으로 인접한 다국적 지역 간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의 새로운 형식이며 지역경제체계 중의 소지역간의 경제형식이라고 제기하였다.

다음은 유럽 및 북미 등 국가의 초국경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이다. Maurice Schiff와 L. Alan Winters는 유럽 내부에서 국경지역 협력의 실천 중에서 초국경개발협력은 인접국가의 역사상황, 국가 간의 신뢰수준과 양자 간의 기초 시설, 환경 등 공공상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기초시설, 환경, 역사원인, 인접국가

14) 李铁力(2004), "边境效应与跨边界次区域合作研究", 东北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15) 王胜今·于潇(2006), 『图们江地区跨国经济合作研究』, 长春:吉林人民出版社.

간의 정치와 경제관계 등은 모두 국가국경지역에서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한다.¹⁶⁾

Maurice Schiff와 L. Alan Winters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도시 Pouris 사례로 분석하였다.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일체화 과정에서 교통은 중요한 비정책적 무역장애요인이다. 그 중의 일부분 학자들은 동아시아 초국경개발협력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초국경 지역 협력의 모델은 경제 협력구 모델과 개발구 모델로 제시하였다. 또한 초국경개발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경지역의 제도, 문화, 심리적 요소 등도 초국경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⁷⁾

Brocker가 유럽국가간의 국경차단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에 의하면 국경지역의 차단효과는 인접한 경제지역을 375Km 분리시킨 것과 같으며 1/6의 무역량을 줄이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지역 경제협력을 진행한 후에 국가의 정책적 혜택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및 기업의 집결을 통해 국경지대의 차단을 중개로 전환하고 불리한 여건을 유리한 여건으로 바꾸면 소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⁸⁾

16) Maurice Schiff, L. Alan Winters(2002),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Trade July 2002, I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872; “姜永铭,(2009), “跨国区域经济合作与发展研究”,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에서 재인용

17) 김성훈(2012), “초국경개발협력과 북한의 나선지대: 하위지역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 何莉环(2008), “中国—东盟自由贸易区背景下的广西边境贸易发展研究”, 中南民

이정훈은 『NAFTA이후 미국-멕시코 초국경 생활·경제권 형성과 동북아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책에서 미국·멕시코 접경지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남·북·중 접경지대의 현재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와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는 선진국과 발전도상국이 마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이며, 이미 20년 전에 FTA를 체결하여 국경을 넘어선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지역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었다.¹⁹⁾

김종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교를 통한 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 - 동북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에서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조류에 동승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무역 자유화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EU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사회문화가 유사한 동북아한·중·일간의 지역무역협정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²⁰⁾

셋째는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에 관한 연구이다. 1994년에 최룡하(崔龍鶴)는 “아태시대와 두만강개발”이라는 책에서 아태시대 두만강지역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였다. 주로 두만강지역의 자원, 주요산업, 개발전략과 전망 등을 설명하고 두만

族大学 硕士学位论文, pp.3-6.

19) 이정훈(2014), 『NAFTA이후 미국-멕시코 초국경 생활·경제권 형성과 동북아에 대한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20) 김종규(200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교를 통한 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동북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강지역의 경제무역을 통해 중계무역, 변경무역, 인력무역, 관광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²¹⁾

천차이(陳才)의 주장에 따르면 “두만강지역은 중·러·북 3국의 중앙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지정학적 우세가 뚜렷하다. 이 우세는 미래의 두만강협력개발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²⁾

쑤만리(蘇曼利)는 “두만강지역다자협력모델연구”라는 논문에서 두만강 지역을 중·러·북 3국 접경지대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²³⁾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에서 동해, 러·북 동해안 그리고 일본 서해안으로 가는 가장 편리한 교통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청진항, 선봉항과 나진항이 두만강 유역의 대표적인 항구이다. 이에 따라서 두만강 지역에 개발하는 경제자유무역국은 지리적 우위와 발전 잠재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부와 비정부 간의 프로협회의 건설은 초국경개발협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궈원지원(郭文君)의 “두만강지역 협력개발에 따른 연변경제발전 전략 연구 (圖們江區域合作開發中延邊經濟發展戰略研究)”²⁴⁾에 따르면 두만강 지역의 협력 개발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각 국가 간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도 도모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진흥전략”

21) 崔龙鹤(1994), 『亚太时代与图们江开发』, 延吉·延边大学出版社.

22) 陈才(2002), “图们江地缘经济区发展对策研究”, 『东北亚论坛』.

23) 苏曼利(2010), “图们江区域多边合作模式研究”, 长春工业大学 博士学位论文.

24) 郭文君(2009), “图们江区域合作开发中延边经济发展战略研究”,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과 “창지투개방 협력 선도구 전략 (開放長吉圖 合作先導區戰略)”을 추진하고 연안경제의 활성화와 국경지역의 사회 안정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두만강지역 협력개발을 통해 북·중·러 포함한 한국, 몽고, 일본 등 주변 동북아 국가도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천차이, 웬수우런(袁樹人)의 “동북아지역개발 및 두만강지역개발”은 이 시기의 중요한 저술로서 중국 동북과 길림성 경제발전 및 대외개방, 두만강의 통해와 통항권리를 회복할 것에 관하여 논술 하였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동북아지역 정치경제 형세발전 변화의 특징과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의 역사적 필연성을 토론하고 두만강지역의 다자간 개발 모형과 추진 방안을 제기하였다.²⁵⁾

창지투 개발에 관련 나선지대에 대한 연구는 홍익표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북·중 경제협력과 창지투 개발계획”은 북·중 경제협력이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어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체제안정성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현실성 있는 북한 문제 접근에 유용하다. 홍익표의 연구는 북·중 경제협력이 중국의 전략적 대북정책 판단에 기초한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어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체제안정성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북한 문제 접근에 유용하다.²⁶⁾

25) 陈才·袁树人(1996), 『东北亚区域合作与图们江地区开发』, 长春·东北师范大学出版社.

26) 홍익표(2001), “북·중 경제협력과 창지투 개발계획”, 『북한경제리뷰』 제9월호.

송은희는 역내 협력과 지역주의의 발전을 위해 “자연적 경제권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동남아 지역보다 높은 상호보완성을 지닌 동북아 국가가 안보와 경제적 경쟁관계로 역내협력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²⁷⁾

심의섭·이광훈은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은 동북국경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상호 대외관계 분석에는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까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 국가의 독자적 개발계획이 다자적 개발과 연계되지 못한 것이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효과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두만강 개발계획 프로젝트 개발에서 시사점을 얻어서 북한과 중국 양국의 연계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²⁸⁾

리중린(李鐘林)은 그 동안의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두만강국제협력개발은 동북아 전체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두만강지역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전망하였다. 리중린은 두만강지역 개발은 복잡한 동북아정치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일시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거대하다고 제시하였다. 두만강지역개발은 시간문제 일뿐이며 동북아지역의 국제환경이 개선되면 두만강지역 각국의 국내환경은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⁹⁾

27) 송은희(2006),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자연적 경제권(NETs)”,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

28) 심의섭·이광훈(2001), “두만강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연구』 제01권 06호.

29) 李钟林(2006), 『图们江地区开发展望』, 延边大学出版社.

신범식의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 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 지역 정치”는 각국의 독자적 개발계획이 어떻게 다자간 협력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 사업을 부진하게 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신범식의 연구는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및 중국과 러시아의 각국 간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나선지대를 둘러싼 각국의 상호 대외관계 분석에는 효과적이거나, 현재까지 진행된 대표적 다자협력 사례인 두만강 개발계획 프로젝트가 왜 성공하지 못했으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다.³⁰⁾

싱수주인(邢淑君)의 “두만강지역개발전략 중에서 본 국제협력의 문제”³¹⁾에서는 두만강지역의 국제협력개발이 직면한 문제는 모두 역사적 문제와 관련되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온 ‘화남경제권’과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성장 삼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공 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례를 두만강지역 국제개발협력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나아가 두만강지역 개발협력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에 대해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 지역경제일체화에 집중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다. 초국경개발협력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는 물론 초국경개발협력의

30) 신범식(2013),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 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 지역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1) 邢淑君(2014), “图们江区域开发战略中的国际合作问题”, 吉林大学博士学位论文.

이론체계조차 여전히 미숙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국경 개발협력의 기본개념에 대한 접근을 토대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실태와 그 기능을 분석하고자한다.

제2절 초국경개발협력의 개념, 형태, 기능

1. 초국경개발협력의 개념

지역협력은 지역, 소지역, 초국경지역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경제 주체로 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지역 내의 산업, 무역, 투자 등 분야의 상호협력을 추진해 통일된 내부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지역협력이다.³²⁾

국경지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 인접 지역을 말한다. 현대 접경이론을 검토해보면, 접경지역은 양측 국가의 국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경지역 발전의 영향력은 국가내부지역의 발전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를 가진다. 각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변경지역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우세를 가지고 있다. 이 잠재적 우세는 자원우세, 생산요소우세, 입지우세, 산업협력우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³³⁾

경제세계화와 함께 국가가 경제일체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

32) 姜永铭(2009), 앞의 글.

33) 姜永铭(2009), 앞의 글, pp.26-32.

여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경제 일체화 그룹을 구성하고 소지역 경제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의 초국경개발협력을 전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초국경개발협력은 소지역협력과 지역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이다.³⁴⁾

아태지역 협력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몇 개의 소지역 협력은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초국경 소지역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논의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간(translocal) 통합현상은 특히 유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Hettne는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주의적 현상은 세계화 진전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지역주의화 과정 속에서 세계화의 요소가 발견되기도 한다.³⁵⁾

Johnson은 “초국경 또는 월경적 지역협력은 전통적인 지역 거버넌스구조를 우회하면서 초국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지역경제발전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³⁶⁾ 더불어 중국학자 덩도(丁斗)는 “지역경제 일체화와 제도의 변천”에서 “소지역경제협력은 소범위의 허락을 받고 단일한 경제구역이 될 수 있는

34) 马璵(2002), 『区域主义与发展中国家』,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p.33.

35) Hettne, Björn(2002), “The Europeanisation of Europe: endogenous and exogenous dimensions”, European Integration, Vol. 24. No. 4.

36) Johnson, Corey(2009), ‘Cross-border Regions and Territorial Restructuring in Central Europ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2009-16, pp. 177-191.

초국경 다자간 경제협력”이라고 제시하였다.³⁷⁾

김수한, 만하이펑(滿海峰)등 학자들은 “초국경 소지역 경제협력은 큰 지역 내에서 (예: 아태지역, 아프리카 등) 지리적 인근국가이거나 인접국가의 일부분 이역과 같이 하는 경제 협력”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소지역 경제협력은 차원성이 있다. 큰 차원을 예로 들면 일본해 경제구, 황해 경제구와 동맹자유 무역구 등을 들 수 있고, 그 보다 작은 차원을 예로 들면 여러형식의 “성장삼각”을 포함하는 초국경 협력이다.³⁸⁾

김천규 등 학자들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개발협력 실천전략 연구”³⁹⁾에서 “광역적 공간조직 재편과 교류가 확대·심화되면서 국가간의 경제가 사실상 사라져가고 있는 현상”은 초국경개발협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용명(姜永銘)은 “초국경경제협력과 발전에 관한 연구”에서 “작은 지역 범위 내의 경제협력 계획이고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37) 丁斗 (1998), “图们江和澜沧江-湄公河增长三角次区域经济合作的一种研究”, 『战略与管理』, pp. 101-107.

38)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에 대한 논의는 김수한(2014), 앞의 글; 원동욱 외 (20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김 철(2000), “두만강유역 북·중 연계지역 개발현황 및 당면한 문제: 훈춘지역 국토개발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4호; 강주원(2013), “중·조 국경의 다층적 의미: 역사 속의 변경 확대와 현재의 국경 강화”, 『역사문화연구』 제45집; 欧建锋(2013), “跨区域国际经济合作及中国的对策”, 『国际经济合作』第5期; 黎鹏, 杨宏昌, 王勇(2014), “区位理论视阈下中国-东盟沿边跨国区域合作发展研究”, 『广西社会科学』 등 참고

39) 김천규·이상준·임영태·이백진·이건민(2014),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개발협력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의 국경지역을 연합해서 초국경 기구를 만들어서 자원상호 보완을 통해서 이익을 획득하여 경제발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 하였다. 이 정의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지역 경제협력은 특정된 경제적 합의와 지리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⁴⁰⁾ 이 연구는 장용명이 제시한 초국경개발협력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을 정리하였다.

요컨대 초국경경제협력에 관한 다양한 이론은 접경지역 통합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인접한 국가 또는 지역이 장기간 연계하고, 협력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조화기제를 통해 행정적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접경지역에서 조화로운 경제·정치·사회·환경·문화 공동체를 구축해 최종적으로 일체화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접경지역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 혹은 지역에게 외부적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시스템의 융합을 촉진하고, 접경지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도 촉매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40) 姜永铭(2009), 앞의 글.

2. 초국경개발협력의 특징⁴¹⁾

초국경개발협력은 국경을 초월하는 국가 간, 지역 간 협력으로서 초국경성, 지방성, 미시성, 속효성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²⁾

첫째, 초국경성이다. 초국경개발협력은 인접국가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초국경개발협력은 일정한 조직을 통해 협력과정에서 국경지역 경제의 무질서한 사회행동을 규칙적인 사회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즉 국경지역의 사회경제적 행동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초국경 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경은 국가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세계경제와 무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특히 무역 글로벌화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변경지대도 국가 간 경제거래의 접촉면이다. 접경지대에서도 경제협력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고, 국가 접경지역에서 편리하게 경제무역거래를 추진함으로써 주변지역을 경제 성장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 국경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비슷한 문화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양측 무역거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

41) "焦朝霞(2014), "近期中朝边境经济去合作的特点及趋势分析", 『通化师范学院学报』第35卷第5期 ; 李铁立, 姜怀宇(2004), "边境区位、边境区经济合作的理论与实践-以辽宁省-朝鲜边境地区经济合作为例", 『人文地理』, 12月 第19卷 第6期" 참고

42) "焦朝霞(2014), "近期中朝边境经济去合作的特点及趋势分析", 『通化师范学院学报』第35卷第5期 ; 李铁立, 姜怀宇(2004), "边境区位、边境区经济合作的理论与实践-以辽宁省-朝鲜边境地区经济合作为例", 『人文地理』, 12月 第19卷 第6期" 참고

다. 따라서 국경지역 특히 다국가 접경지역은 이러한 지정학적, 문화적 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국경개발협력사업의 핫 이슈 지역이다. 초국경 조직을 통해 구동존이(求同存异)의 원칙으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43)

북·중 접경지역은 육로와 항만이 긴밀히 연결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북한은 나진, 선봉, 청진 등이 있고, 중국동북의 중북부에 위치한 두만강지역경제 지대는 여러 항만과 맞닿아있는 내륙지역이다. 그리고 항만지구의 부지는 아주 광범위하여 중국의 동북과 북한의 북부, 러시아의 동북 등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두만강지역은 세계적인 철도망과 해산운수망의 중추적 위치에 놓여 있어 아시아와 유럽대륙과 연결되고 북으로는 북미로 통하는 지역으로서 유럽과 동, 서양의 무역에 이상적인 통로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북·중 접경지역의 육로와 철도, 항만의 일체화를 긴밀히 연결하는 것은 이 초국경개발협력률을 형성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44)

둘째, 지방성이다. 초국경 소지역 경제협력 중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국경지역은 항상 국가의 변두리 지역에 위치에 있다. 그 중에서 소지역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지역은 대다수가 낙후된 변경지역이기 때문에 각 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은 비교적 작은 편이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방 정부가 협력의 주체가 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초국경개발협

43) 肖洋(2014), "跨境次区域合作与丝绸之路经济带 - 基于地缘经济学的视角", 『和平与发展』第4期

44) 김영순(2008), "두만강유역개발의 특성과 국제협력의 개발과제연구 -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商業教育研究 제21권, pp.2-5.

력의 직접적인 이익 관계자이고, 초국경개발협력은 지역협력과 소지역협력보다 지방 특색이 더 강하다. 45)

초국경개발협력 과정 중에서 공업과 상업의 확산에 따라 각 지방의 요구도 높아질 수 있다. 변경지역에서는 환경오염, 교통, 공공위생, 법률과 교육체제 차이, 토지이용 계획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융통성 있고 변경지역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된다.

중국의 연변(延邊)지역(예: 길림, 운남, 광서 등), 한국 서해안 지역, 일본 북부지역 등은 해당 국가에서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들이다. 이러한 지역의 지방정부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지역 경제협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도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 46)

셋째, 미시성이다. 초국경개발협력의 연구대상은 거의 다 초국경개발협력 실천 중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문제의 범위가 작고 구조가 단순하고 활용성이 뚜렷하다. 변경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은 여러 장애요소가 있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발전 과정 중에서 경제규모, 산업구조, 변계 양측 경제체제, 문화, 언어, 풍속 등의 차이와 경제거래의 역사적 기반 등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인 자

45) 徐驰(2008), “跨境合作理论与中国参与图们江跨境经济合作研究”, 外交学院硕士学位论文, pp.17-24.

46) 王禹(2012), “中国改革开放后延边州与朝鲜、韩国交流合作关系研究 - 以图们江开放开发为中心”, 延边大学 博士学位论文, pp.37-46

금문제, 기술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인적문제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초국경개발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⁴⁷⁾

넷째, 속효성이다. 초국경개발협력은 다른 협력보다 더 신속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활용성이 높다. 더불어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성이 있다. 초국경개발협력은 일반적으로 무역을 하는 회사보다 자본규모가 작고 더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한 국가는 동시에 여러 개의 초국경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초국경개발협력은 지역적 협력으로 전국에서 통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와 행정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없어 정치 및 경제적 위험요소가 낮다. 아울러 활용성이 강해 참여국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성과도 쉽게 나타난다. 초국경개발협력은 일단 초기에 성공하면 주변에 있는 참여국도 참여해 함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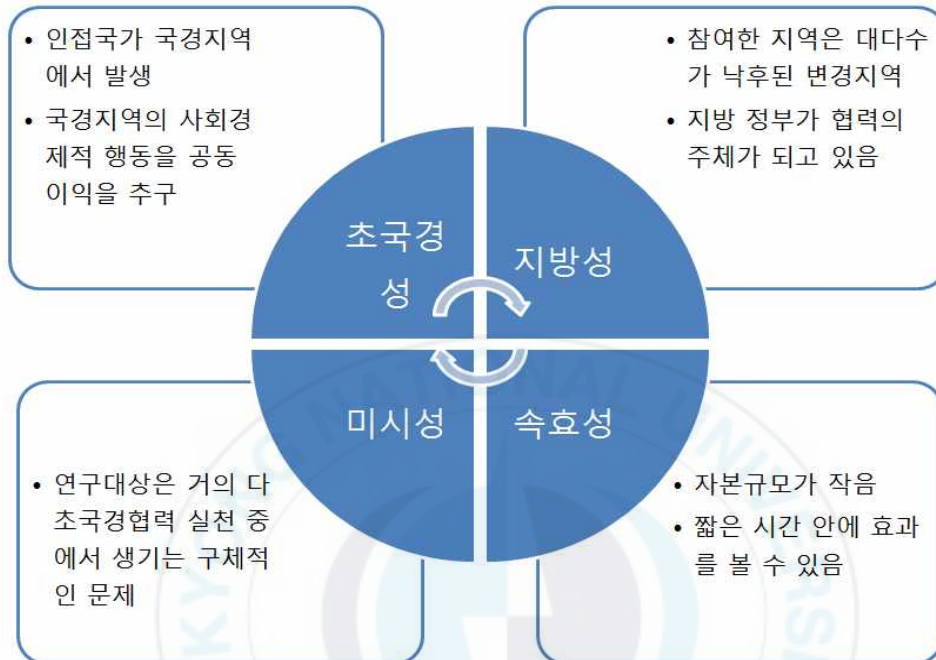
이에 따라서 북·중 접경지대는 지역은 정치, 경제체제가 EU, NAFTA와는 다르고 경제발전수준, 대외개방정도, 인프라 건설정도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기의 발전 특성도 있다. 북한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고 있고, 중국은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을 거친 나라이며, 이중에서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인프라 시설이 가장 좋다고 보인다.⁴⁹⁾

47) 黄征学,(2013), “中国边境地区发展面临的问题及对策建议”,『发展研究』.

48) 김수한·최종원(2012), 『북중 접경협력 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 인천발전연구원, pp.12-13; 姜永銘 (2009) , 앞의 글.

49) 김영순(2008), 앞의 글, pp.2-5.

<그림1> 초국경개발협력의 특징



출처: "焦朝霞(2014), "近期中朝边境经济合作的特点及趋势分析", 『通化师范学院学报』第35卷第5期; 徐驰(2008), "跨境合作理论与中国参与图们江跨境经济合作研究", 外交学院 硕士学位论文, pp.17-24, 참고

3.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접경지역의 유형화는 국경의 기능과 특징 그리고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초국경개발협력의 긴밀성을 척도로 한 사례의 분류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가야 할 접경지역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접경지역의 형태는 소외된 접경지역 협력, 공존하는 접경지역협력, 상호의존적인 접경지역

협력, 그리고 통합된 접경지역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⁵⁰⁾

첫째, 소외된 접경지역 협력. 소외된 접경지역은 국경이 기능적으로 폐쇄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선 상호작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소외된 접경지역에는 긴장관계가 상존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반도의 휴전선으로 가로 막힌 남북한의 접경지대를 들 수 있다.

둘째, 공존하는 접경지역 협력. 일정한 조건과 시기에 따라 제한된 초국경 상호협력이 일어나는 지역 협력이다. 안정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이 함께 존재하는 접경지역이다. 국경은 제한된 상호협력 개발을 위한 경우에만 개방된다. 이 역시 북한의 개성공단을 사이에 둔 일부 남북접경 지대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⁵¹⁾

셋째, 상호의존적인 접경지역 협력. 상호의존적인 접경지역은 상호의존적인 협력이 존재하는 접경지역이다. 항시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서 경제·사회적 보완성이 증대됨에 따라 접경지역 간 상호작용이 제고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접경지역의 확대로 이어진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개 친숙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중국의 선전(深圳)과 홍콩 사이의 관계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⁵²⁾

넷째, 통합된 접경지역 협력. 통합된 접경지역은 국경을 통과하는 인적 및 물적 교류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통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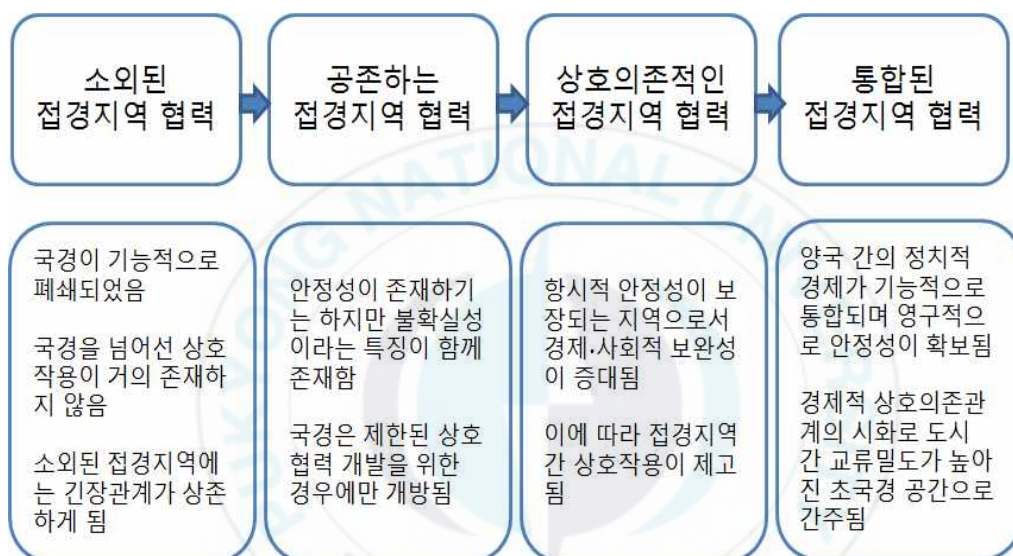
50) 김수한·최종원(2012), 앞의 글, pp.14-15

51) 김수한·최종원(2012), 앞의 글, p.14.

52) 김수한·최종원(2012), 앞의 글, p.14.

접경지역의 유형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양국 간의 정치적 경제가 기능적으로 통합되며 영구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의 도시 간 교류밀도가 높아진 초국경 공간으로 간주된다.⁵³⁾

<그림 2> 초국경 개발협력의 형태



출처: 김수한·최종원(2012), 『북중 접경협력 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 인천발전연구원, pp.12-13, 참고

국지적 초국경 협력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접경지대에 설치되는 경제특구를 들 수 있다. 경제특구는 국내외 여타지역과 차별화된 세제, 규제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조성된 특별지역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경제특구는特惠무역협정,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연맹 및 완전한 경제일체

53) 김수한·최종원(2012), 앞의 글, p.15

화 등 6종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⁵⁴⁾

4. 초국경개발협력의 기능⁵⁵⁾

초국경개발협력의 기능은 정치·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1) 정치·안보적 기능

국가 정치적 차원에서 한 국가가 지역협력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자 하면 상당한 파위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태도와 동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대안도 마련해야만 지역협력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현재 지역협력은 저해요소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초국경 개발을 실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편으로 인접국가와 양자협력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자협력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국경 개발사업 중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국가의 영향력도 제고할 수 있다.⁵⁶⁾

국가 안보차원에서 살펴보면, 국가의 안보는 내부요인과 외부요

54) 임결(2013),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13.

55) 徐驰(2008), 앞의 글, pp.17-24.

56) 徐驰(2008), 앞의 글, pp.17-24

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부요인 중에서 인접국가와 지역은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경지대는 늘 한 국가의 민감 지대이다. 특히 중국과 같은 국토면적이 넓은 국가에게 있어서 국경은 민족, 종교, 변경, 국제적 갈등 등 문제와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 시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⁵⁷⁾

따라서 초국경개발협력은 국경지역 지방의 구조적 갈등을 개선할 수 있다. 초국경개발협력을 통해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고, 국경지역의 충돌과 위험요소를 약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초국경개발협력은 국가 접경지역의 안보와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2)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변경지역은 늘 해당 국가에서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다. 따라서 초국경개발협력을 통해 참여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변경지역의 경제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안보, 사회 안정, 민족 단결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소지역 경제협력 발전의 원동력이다. 정부 차원에서 초국경개발협력은 국가 간의 초국적 행위이고, 기업차원에서 초국경개발협력은 자발적인 초국경 무역거래 행위이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지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최근 지역 간의

57) 张蕴岭(2013), “中国参与和推动东北亚区域经济合作的战略”, 『东北亚论坛』

第1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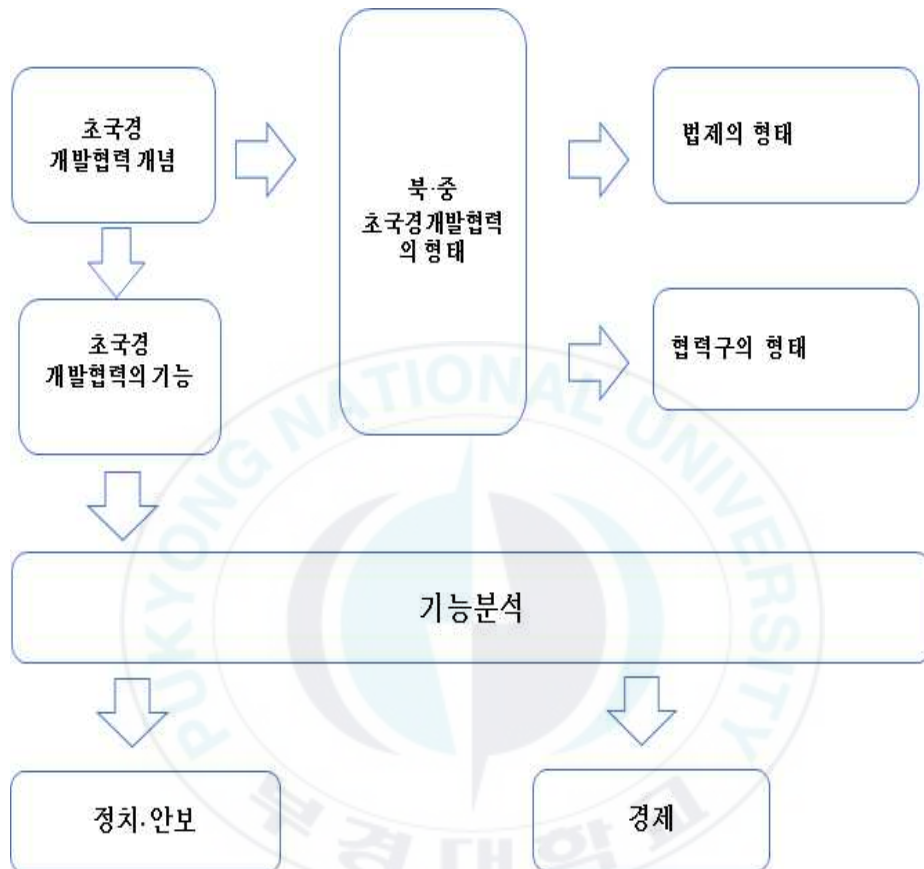
경제 및 정책적 차이를 활용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소지역 경제협력 과정에서 기업은 경제 거래 단가를 낮추고, 시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 더불어 초국경개발협력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초국경개발협력은 국가와 주변국가의 경제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역내 참여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⁵⁸⁾

제3절 분석틀

이 연구는 초국경개발협력 이론을 기반으로, 초국경 개발협력의 형태를 분석함으로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연구목적이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를 통해 초국경개발협력의 기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58) 徐驰(2008), 앞의 글, pp.17-24

<그림 3> 분석틀



제3장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제1절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추진배경

북·중 협력지대는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더불어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 중국 동북부 배후시장 등을 갖추고 있어 인접국들의 경제협력을 유인하는데 유리하다. 철도, 도로, 공항 등 대규모 SOC 투자와 도시건설,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다국적 경제협력의 기회도 증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침체 국면에서 쉽게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동북아 성장거점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⁵⁹⁾

북한은 20세기 90년대 말부터 경제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6년 북한 제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정세가 긴장국면에 접어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중 양국 지도자들은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특구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초국경개발협력 의제를 내놓았다.⁶⁰⁾

최근 북한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구 확대 지정, 외자도입을 위한 대외개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의 협력은 과거 단순 물

59) 박지연(2014),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의 현황 및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60) 김수한, “북중 초국경 협력의 지속과 변화 - 최근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韓中社會科學研究』 2014년 제12권 제4호, 통권33호, p.106

자교역의 수준을 넘어서 인프라 확충 및 경제특구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초국경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예컨대, 창춘(長春) - 훈춘(琿春) - 나선, 블라디보스톡 - 나선 - 원산 - 서울로 이어지는 동해안 발전축상의 나선경제지대와 훈춘국제경제특구의 개방·개발에 따른 북한의 대외개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⁶¹⁾

또한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면서 중국 정부는 경공업 및 제 3차 산업 부문의 민영화 방침을 추진하였고, 동남 연해지역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였다. 동북지역은 중공업이 집중되어 있고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단일한 산업구조로 인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저하되었다.⁶²⁾

21세기 들어와서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역 발전 불균형 특히 연해지역과 내륙 발전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국토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부는 지역경제의 특성에 따라서 13개의 지역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⁶³⁾ 그 중에서 동북 지역 발전을 건인할 핵심지역으로 “랴오닝연해경제벨트지역발전계획(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을 제시하였고, 지역협력강화와 대외개방 심화를 위한 지역 경제개발계획으로는 “중국 두만강지역 경제협력개발계획강요(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를 발표하

61) 김수한, 앞의 글, p.107.

62) 张欢(2014), “中国宏观经济与地区发展不平衡关系研究”, 『现代经济信息』 p. 2.

63) “中国划定新经济地图 13个区域规划升为国家战略”人民网,

<http://finance.people.com.cn/GB/12240008.html>, 2010.7.24

였다.⁶⁴⁾

그리고 중국은 2009년 “창지투 개발계획” 등 자국주도의 동북진 흥전략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나선 경제지대와 창지투 선도 구와의 기반시설 연결, 나선지대의 공동개발 등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⁶⁵⁾ 다시 말해, 중국 동부지역과 북한 간의 연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북·중 양국 간의 초국경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크게 두만강유역과 압록강유역으로 나눌 수 있다.

두만강지역은 1990년부터 국제적 물류·공업·무역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개발구상이 발표되었고, 1991년 10월 24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하에 두만강개발계획(TRADP)으로 출범하면서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두만강지역은 가시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2005년 9월 사업대상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해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reat Tumen Initiative)으로 전환되었다. 더불어 2016년에 이르러서는 동북아 경제협력기구(Post-GTI혹은 North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NAECO(가칭))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⁶⁶⁾

압록강유역은 신의주 행정특구 설치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64) “13个区域规划”，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JYiqJC6DqCKcHxZtu199C2A1EgGTMODJodQ_YAXe7i6zvQ7zwLRHS1H8fof_7sHctXUmKYy8_K3E0No5vRwLLq, 검색 날짜: 2016. 4. 28

65) 김천규·이상준·임영태·이백진(2015), “두만강유역 초국경개발협력 실천전략”, 국토연구원, p.3.

66) 박지연(2014), 앞의 글, p.3.

상호호혜적인 초국경지역의 형성에 실패해왔다. 또한 현재 중국 주도로 진행 중인 신 압록강대교와 황금평 개발 사업은 국경 개방 시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의 기술·자금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토지 및 천연 자원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면 접경지역의 배후중심지까지 포함하는 초국경 경제지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⁶⁷⁾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은 20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 현재 여러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협력은 북한의 체제, 지역정세 등 요인의 영향으로 예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200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영향으로 그 발전은 반복되고 있다.

제2절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법·정책적 정립

1. 중국의 법과 정책의 정립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원자바오(溫家宝) 4세대 지도부의 출범 이후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지역의 개발(‘동북진흥전략’)을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확정하고, 압록강 및 두만강유역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으로 동북진흥전략에 근거한 대외개방 확대를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해 정책적으로 중요시해 왔으며, 이 지역의 인

67) 김천규 외(2013), 앞의 글, p.vi.

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 포함되어 추진되어 왔다. 또한 동북진흥을 위한 대외개방조치의 하나로써 중국은 ‘대북한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09년 7, 8월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북·중 접경지역의 연계개발을 포함하는 국가 급 프로젝트로서 랴오닝성 ‘연해경제 벨트계획’과 지린성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 등이 연이어 인증된 바 있다.⁶⁸⁾

1) 동북진흥전략(2007-2020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지역 발전 불균형 특히 연해 지역과 내륙 간의 경제 발전 격차가 확대되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국가 과제로 부상되었다. 이러한 발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토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2002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동북지역의 노후공업기지의 진흥(振興東北老工業基地)”라는 국가균형 발전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2003년 공산당 제 16 기 3 중 전회에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關於實施東北地區振興老工業基地的若干意見)」이 공식화되었다. 2004년 8월 3일에 중국은 동북공업기지의 개발을 위하여 “동북진흥전략”을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확정하였다. 2005년에 들어와서 중국 정부는 동북진흥전략의 내용을 수정하여 대외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전과 달리 대외개방의 확대, 주변국가와

68) 원동욱(2011), “북중경협의 빛과 그림자: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 간 초국경 연계개발을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p.43.

의 경제협력을 강조하였다. 2007년 8월 향후 15년 간 동북지역의 발전 청사진을 담은 “동북지구진흥전략”을 발표했다. 2009년 11월 16일 국무원은 ‘동북지구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찬지투개발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을 가속화하여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주변국가와의 지역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강조했다.⁶⁹⁾

동북지역진흥전략 중에서 2020년까지 “3횡5종(三橫五縱)”의 공간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압록강유역과 관련된 발전축은 라오닝연해경제벨트와 단둥-훙린허(霍林河) 발전축이다.⁷⁰⁾

이러한 공간발전축 중에서 두만강유역과 관련된 발전축은 주발전축인 하타(哈大) 경제벨트, 2급 주축인 창지투 경제축과 하타치무 경제축, 보조발전축인 동부국경벨트축이다. 두만강유역은 한반도에서 창지투경제축을 거쳐 동북지역의 주발전축인 하얼빈(哈爾濱)-따론티(大連) 축과 교차하고 창춘(長春)-아얼산축과 연결되어 몽골대륙을 이어주고, 동부국경벨트를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와 러시아내륙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⁷¹⁾

69) 김천규 외(2013), 앞의 글, p.54; “东北地区振兴规划”,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1113424.htm>, 검색 날짜: 2016. 05. 7

70) 김천규 외(2013), 앞의 글, p.54; “东北地区振兴规划”,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1113424.htm>, 검색 날짜: 2016. 05. 7

71)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53; 東北振興“十二五”規劃(2012), 『中國財政經濟出版社』. 검색 날짜: 2016.05.7

2) 동북지역의 12·5계획(2011-2015년)

중국 중앙정부에서 12·5계획기간(2011~2015)에 처음으로 '동북지역 12·5계획'을 수립·발표하였는데, 계획목표는 경제발전 재도약, 산업전환승급 격상, 자원형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제고, 민생개선 제고, 개혁개방 제고를 통하여 동북아개방의 중요거점으로 건설하는 것이다.⁷²⁾ 아래 <표1>와 같이 12·5계획 중에서 압록강유역과 두만강유역의 개방개발에 관한 있는 내용이다.

<표1> 12·5계획 중 압록강유역과 두만강유역 발전에 관련 내용

항목	압록강유역(단동시)	두만강유역
지역경제 육성부문	특색 산업집적구로서 동강(东港)농산물심가공 산업집적구를 건설	동북지역의 신형공업기지; 현대농업 시범기지; 과학기술혁신기지; 현대 물류기지; 동북아국제업무서비스기 지를 건설지를 건설
산업 부문	단동시의 생태관광브랜드를 육성하고, 단동 계 량계측산업군집을 육성	
기반	선양-단동과 단동-따론티	하얼빈-따론티 고속철도를 건설

72)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59”, “김천규 외(2013), 앞의 글, p.58” ;東北振興“十二五”规划 (2012) , 『中國財政經濟出版社』, 검색 날짜: 2016.05.7., 참고.

시설 부문	고속철도를 건설; 단둥-파렌 간선철도를 확장	도시군내 성간궤도교통 건설
대외 개방 부문	단둥의 국경지역 대외개방을 격상하며, 국제가공무역의 이전 승계지로 건설	통장(同江)철도대교 건설을 가속화하여 헤이허(黑河)대교, 뤼구허(洛古河)대교, 동녕(东宁)대교 등 월경통로 건설을 적극 추진
지역균형 발전		창지투경제구, 하따치공업회랑, 무쭈이지역 등 중점경제구의 지속발전을 추진
자원형 도시		바이산시(白山市), 따싱안링 (大兴安岭) 지구 등 자원 고갈도시에 대해서는 연계대체산업체계 육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전환을 추진
생태건설 환경보호		따샤오안링임업지구 생태보호 경제 전환계획을 심화 실시하고, 창바이산임업지구생태보호 경제전환계획을 수립

자료: “최우길(2010), 앞의 글, pp.39-44.”, “김천규 외(2013), 앞의 글, p.58” 참고, 재구성

3) 랴오닝연해경제벨트규획(2009-2020년)

2003년 중국정부에서 동북지역진흥전략을 채택한 이후, 랴오닝

성은 “5점1선 (5點一線)”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2006년 랴오닝 성 정부는 “5점1선”의 범위를 단둥, 따론펬 (大連), 잉커우 (營口), 판진 (盤錦), 진저우 (錦州), 후루따오 (葫蘆島) 등 랴오닝 성 전체 연해도시로 확장하고 관련 우대정책도 제시하였다. 2009년 이는 『랴오닝연해경제벨트계획』으로 중국 국가급 계획으로 격상되었다.⁷³⁾

랴오닝연해경제벨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동북아의 국제항운 중심지, 국제임항산업벨트, 친환경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을 건설함으로써 중국 연해지역의 신 성장극을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4)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 - 창지투개발계획(2009-2020년)

중국 정부는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 8월에 창지투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정식 명칭은 「중국 두만강 지역 합작개발계획요강 -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로, 2009년 8월 30일 중국 국무원에 의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정식 승격되었다.⁷⁴⁾

이 프로젝트의 명칭이자 그 대상 지역인 ‘창-지-투’는 두만강 지역의 핵심지역인 길림성 중동부의 대도시인 창춘시, 지린시와

73) 김천규 외(2011), 앞의 글, p.53; “遼寧沿海經濟帶發展規劃”,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hfagUBiK-SfDyiCqL1OBKt3pkwCGv9lnd_pEB1Km_xmECzluhFpxteNZTUFg0c57tlBhrwcn5vKh1Io2x03XLa, 검색 날짜: 2016.05.7.

74) “长吉图先导区阶段发展目标”,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战略实施网_长吉图官方网站, <http://www.cjtzlss.com/news/7/17.html>, 2013.08.27.

옌뎨 자치주 전체를 포함하며 총 면적은 7.32만 m²이며, 인구는 1,097만, 경제 비중은 지린성의 70% 이상이다. 이 지역은 2개의 대도시, 9개의 중소도시, 179개의 향진을 포함하고 있다.⁷⁵⁾ 나아가 북한 동북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전 지역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협력지대를 만들려는 구상임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창지투 개발규획은 창춘과 지린을 양대 축으로 하여 산업 클러스터의 배후지를 형성하는 한편, 옌지(延吉)-투먼(圖們)-룽징(龍井) 등의 변경 도시를 개발의 전진기지로 삼아 북한 동북 지역과 연계하는 초기의 개발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⁷⁶⁾

이 규획은 2010~2020년에 기간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1단계(2010~2012) 목표는 2008년 경제총량의 2배 수준, 삼림 피복율 60%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단계에 이르면 훈춘시가 대외개방 창구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제고되고, 옌룽투의 전초기지 기능이 더욱 확고해지며, 창춘과 지린의 배후지로서의 역할이 뚜렷해져 선도구의 효과가 가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⁷⁷⁾

75) 振兴东北 (2009) , "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全文)"http://chinaneast.xinhuanet.com/2009-11/17/content_18251163.htm, 검색 날짜:2016.4.5

76) 원동욱(2011), 앞의 글, pp. 48-53 ; “长吉图先导区阶段发展目标”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战略实施网_长吉图官方网站,
<http://www.cjtzlss.com/news/7/17.html>, 2013.08.27.

77) 원동욱(2011), 앞의 글, pp. 48-53 ; “长吉图先导区阶段发展目标”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战略实施网_长吉图官方网站,
<http://www.cjtzlss.com/news/7/17.html>, 2013.08.27.

제2단계(2012~2020) 목표는 경제 총량의 4배 이상, 삼림 피복율 68%이상 유지와 대·중 도시 오수 처리율을 100%까지 달성하는 것이다. 즉 2020년까지 이 지역의 GDP를 1.9조 위안, 도시화율 70% 달성으로 동북 지역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특색산업체계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과학 기술 능력은 선진 수준에 도달하며, 대내적으로는 지역 협력이 활성화되며, 동해를 통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⁷⁸⁾

2. 북한 측의 법과 정책의 정립

북한이 주창하는 강성대국건설의 3대 전략목표는 군사강국, 정치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주요 목표는 경제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2007년 말 ‘강성대국의 문을 열자’는 구호 하에 전력, 석탄, 운송, 금속 등 4대 기초공업 발전에 역점을 두었고, 2010년 말 ‘인민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경공업과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을 ‘경공업의 해’로 설정하여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송부문을 강력 지원한다.⁷⁹⁾

청진 및 나선지역과 관련한 북한 측의 공식적인 계획으로서 2010년 공개된 「북한경제개발10개년계획」(정식명칭은 2010-20

78) 원동욱(2011), 앞의 글, pp. 48-53; “长吉图先导区阶段发展目标”,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战略实施网_长吉图官方网站,

<http://www.cjtzlss.com/news/7/17.html>, 2013.08.27.

79) 장동명 (2011), “중·북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동향과 전망”, 국토연구원, 『중국의 국토개발과 한중 협력 특집』, p.5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을 들 수 있다. 이 계획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공업지구 개발, 교통망 개발, 에너지 개발, 농업개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선진국가수준에 도달한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⁸⁰⁾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는 철도의 경우, 10년에 걸쳐 철도 4,772 km 건설과 도로 및 고속도로 2,490km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공항은 평양국제공항을 연인원 1,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제시하고 있으며, 600만 kW 전력 확보를 위한 발전소건설계획도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식량 확보를 위한 농업개발측면에서 농약공장 건설, 종자기지 건설, 종합농기계 공장건설, 축산농장과 사료공장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⁸¹⁾

북한은 2013년 11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해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개발계획을 공개하였고, 2014년 5월 6개를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추진 중이다.⁸²⁾ 이외에도 14개의 ‘국가급 경제특구’를 추진 중이다.⁸³⁾

80)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48; 金哲, 卞晶(2012), “朝鮮 ‘國家經濟開發十年戰略計劃’”,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4期.

81)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p.47-52; 최영진(2012), “환동해권 지역사회의 상호의존과 견제: 체제이행국가 접경지역의 대외경제교류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3호, pp.293-321.

82) 19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와우도수출가공구, 압록강경제개발구,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 북청농업개발구, 흥남공업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해산경제개발구,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 송림수출가공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추가), 강령국제녹색시범구(추가), 청남공업개발구(추가), 숙천농업개발구(추가), 청수관광개발구(추가), 진도수출가공구(추가),”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 53.”

83) 14개 경제특구는 “라선경제무역특구, 황금평위화도경제개발특구, 개성경제개

그리고 2010년에 북한은 중국과 나선지대 공동개발·관리 계획을 체결하였다. 2011년 6월 9일에는 북·중 양국이 나선특구 공동개발 및 원정리-나선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을 양측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⁸⁴⁾

제3절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대부분의 초국경적 협력은 비교우위를 활용한 경제발전, 기반시설 공동개발 및 공유, 환경문제의 해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대표적인 협력유형은 국경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경우와 개방적 국경의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⁸⁵⁾

발특구, 금강산경제개발특구, 신의주경제개발특구, 평성경제개발특구, 남포경제개발특구, 강령경제개발특구, 해주경제개발특구, 온성경제개발특구, 개성첨단기술개발구, 원산관광특구, 칠보산관광특구, 백두산관광특구”, “김천규 외 (2014), 앞의 글 p.50.”

84) 북중 간 합의된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프로젝트는 모두 8개로, 이번에 가동된 협력프로젝트는 훈춘권하-나선 간 50km의 2급 도로개조 프로젝트, 나진항중국내수화물 초국경 우회운송 프로젝트, 나선지역 고효율 농업시범지구 프로젝트, 100만톤 시멘트공장 프로젝트, 중국인 나선지역 자가용관광 프로젝트 등이다.”羅先特區, 互動百科, <http://www.baike.com/wiki/%E6%9C%9D%E9%B2%9C%E7%BD%97%E5%85%88%E7%BB%8F%E6%B5%8E%E7%89%B9%E5%8C%BA%E5%9C%B0%E5%9B%BE>, 검색날짜:2016.4.27 ”

85) 김원배 외(2005),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 지역의 대외전략”, 국토연구원, p.27.

<그림 4>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 및 황금평경제지대 위치도



출처: “북 황금평·나선 경제특구지역”, 연합뉴스, 2012.8.15.⁸⁶⁾

1. 두만강유역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두만강유역 개발과 관련한 북·중 간 초국경개발협력은 TRADP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작되었고 2005년부터 GTI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북핵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의 긴장한 국면이 조성되었다. 최근 북한의 내부분제로 인해 북·중 접경지역 개발은 중국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2009년 이후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북·중 양국 정부는 2010년에 『북·중 나선경

86) “북 황금평·나선 경제특구지역”,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59608>, 2012.08.15

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관리에 관한 협정(2011-2020)』을 체결하였다.⁸⁷⁾

1) 물류·교통 분야

북·중 양자 간의 초국경개발협력 사업 중에서 기반시설 분야는 주로 두만강유역 교통·물류망 공동개발사업, 두만강유역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두만강유역 철도·도로·항만시설 현대화사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⁸⁸⁾

중국 동북지역, 북한의 나선지역은 한국과 일본 등 주변지역의 중심지로, 교통 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북·중간 관련이 있는 나진항을 중심으로 한 나진-훈춘, 나진-하산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고 현재는 나진-훈춘 간은 도로, 나진-하산 간은 철도로만 연계되어 있으나, 향후 두만강유역 개발 및 나선자유무역지대 개발 등이 본격화될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에 국경도로 대교 건설을 위해서 중·북 훈춘-원정, 훈춘-경원군 등 기초 인프라 건설하고 있다.⁸⁹⁾

현재 창지투 개발사업 중 계획의 일부분은 이미 완공된 상태이며 지금도 건설 중이다. 창춘-훈춘 고속도로가 2010년 9월에 완

87) 전병곤(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 - 종합요약보고서,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다층적 초국경개발협력방안』, 서울:통일연구원, pp.153-175.

88) 태향화(2009), “북중 나선 - 훈춘경제협력구 건립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4-54.

89)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p15-20”; “신범식(2013), 앞의 글, p.429.”

공되었고, 2007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간 창춘-지린-옌지-투먼-훈춘을 연결하는 시속 200km 고속열차는 2015년 9월 20일에 정식적으로 시행하였다. 창춘-훈춘 456km 구간 이동은 기존(고속도로 10시간)에서 2시간 53분으로 단축되었다.⁹⁰⁾

중국 측 도로인 훈춘-권하 도로와 중국 권하-북한 원정 간 다리 보수공사완공으로 인해, 중량 제한이 20톤에서 최대 40톤으로 증가되고 중국과 접경하는 북한 측 도로인 원정리-나선 구간이 완공되면서 북·중 경협은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이구간이 개통되면서 중국 훈춘-북한 선 구간의 자가용 관광 상품도 출시되었고 중국에는 유례가 없는 북한 관광 붐이 일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3년 4월에는 훈춘을 출발하여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둘러보는 3국 무비자 관광을 허용하는 등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⁹¹⁾

‘도로·항만·지역 일체화’는 중국 지린성의 옌벤과 훈춘 등 지역의 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위화도 북·중 상호무역지대건설을 위해 세관통관 검사시설을 확대하고 중·북의 ‘도로·항만·지역일체화’ 사업을 위해 출입국장소를 2만 m² 규모로 확장 건설하고 있다.

북·중 간에 이미 북한의 나진항 개발·이용협력에 합의하는 1호 부두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저장용량 4만 톤, 연간물동량 150만

90)长珲城际铁路, <http://baike.baidu.com/item/%E9%95%BF%E7%8F%B2%E5%9F%8E%E9%99%85%E9%93%81%E8%B7%AF?fr=aladdin>, 百度百科, 검색

날짜: 2016.5.4

91) 장홍석(2012), "중국의 두만강 개발 사업을 통해 본 북·중 협력과 그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8.

톤의 석탄하역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두만강 운송통로를 형성시켜 중·북 쌍방무역의 소통과 동북지구 제2 해상통로 건설에 커다란 촉진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⁹²⁾ 중국 중앙정부와 지린성 지방정부는 새로이 변화된 상황에서 동해안 해상 통로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즉 대 북한 ‘도로·항만·지역일체화’ 프로젝트가 장애에 부딪힌 상황에서 과거 사업의 전면에서 나설지 않았던 중국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였다.⁹³⁾

2) 산업분야

북·중 양자 간의 초국경개발협력사업 중에서 산업분야는 나선 국제수출가공무역단지 개발사업, 중국옌벤·나선 접경지역 신도시 개발사업, 북·중 접경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⁹⁴⁾

중국 지린성 동북아철도그룹주식유한공사 구조조정, 민영기업 합병 및 러시아 사영철도와 협력 자원 등 영역에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다. 북한 측의 나선 국제산업복합단지 공동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선전 등 국제적 교역도시의 성장과정을 벤치마킹하여 3단계로 계획·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⁹⁵⁾

92) 장둥밍 (2011), 앞의 글, pp.57-58.

93) 태향화(2009), 앞의 글, pp.44-54.

94)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p.47-51”; “양운철·유현정(2012), “창지투 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종연구소.”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중국의 투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12월 중국은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를 나선특구에 투자하여 도로와 발전소를 지어주고 광물 채굴권을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또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는 2010년 12월에 베이징에서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 43와 10항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상지공사는 2~3년간 나선 경제특구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5~10년에 걸쳐 동북아 최대 핵심 공업특구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상지공사는 총 20억 달러를 투자해 화력발전소, 도로, 유조선 전용 부두, 석유정제공장,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함북 무산 자철광산 등 북한의 지하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국제 금융은행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⁹⁶⁾

2009년 7월에 중국 랴오닝성 소재 따론허창리경제무역유한공사(大連創立經濟貿易有限公司)는 북한의 나진강성무역회사와 나진항 1호부두 등 관련 사업의 현대화를 위한 합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침을 받아 동년 11월에 나진항 2호 부두 관련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훈춘에 초기 자본금 3,000만 위안으로 훈춘창립해운물류유한공사(琿春創立海運物流有限公司)를 설립하였다. 2009년 6월 나진항 1호 부두의 현대화 사업과 인근 비료중계장 8,100m를 석탄 창고로 개조하는 작업이 완료되었고, 2,000만 위안을 추가 투입하여 나진항 1호 부두 1호 정박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이다.⁹⁷⁾

95)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p.34-38.

96) 이영훈(2011),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 『나라경제』 제13권 제4호(서울: 한국개발연구원) pp.3-19.

지하자원 개발 측면에 중국 화룽시에서는 강철기지, 수입자원가공기지과 녹색식약품가공기지과 통로 건설을 향후 일정기간 중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룽시의 수입 자원은 철광분을 위주로 하는 광산 자원과 명태 등 해산물 자원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 제품 수출 집산지를 만들 계획이다.⁹⁸⁾ 한편 북한 무산 광산은 730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최대의 노천철광이다. 따라서 이 구간은 중국의 무산 광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사전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⁹⁹⁾

3) 관광분야

“두만강 대삼각 관광벨트”를 추진하기 위해 북·중 양국은 백두산관광지대와 온성관광지대, 그리고 두만강하류의 방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두만강 관광벨트’ 구축사업 1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2단계는 청진, 칠보산,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¹⁰⁰⁾

백두산 국제관광 개발 사업은 백두산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

97) 원동욱(2011), 앞의 글, p.49.

98) 기지건설 전 단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강철 산업을 늘여 자동차부속품가공구역과 유색금속가공구역을 건설하게 된다.

99) 필지봉(2014),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및 경제협력 실태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0) 윤황·전형권·이소영(2015),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분석: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1호.

은 관광자원은 백두산이다. 그리고 북측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출입국 업무도 대폭 간소화했다. 또 양측은 북한 온성군에
 있는 섬인 온성도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중국과 북한은 이곳
 에 골프장과 위락 시설 등 관광 시설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
 다.¹⁰¹⁾ 북·중 간의 철도 건설 공사가 완공되면 북·중 변경
 무역발전과 경제 합작 구역 건설, 대 북한 관광업과 관광업의 발
 전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투먼시는 최
 근 함경북도 칠보산을 잇는 관광 열차를 북·중 관광철도 노선으
 로는 처음 개통하기도 했다.¹⁰²⁾

그리고 지금 중국·북한·러시아 3개 국가의 접경지대에 무비
 자관광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13·5 계획(13·5规划)’
 에 귀속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린성 훈춘시(珲春市)의
 방천지역을 국제관광지로 지정하여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10km²
 에 달하는 국토를 포함시켜 온천호텔, 골프, 면세 쇼핑 등 항목을
 비롯한 관광·오락 종합관광지 건설에 힘을 가하고 있다.¹⁰³⁾

훈춘시에서는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협력구’를 추진하기 위해
 50억 위안의 투자 유치 계획을 세우고, 이미 국제관광협력구의
 기초시설 건설에 3.6억 위안을 투입하였다. 2010년 9월, 훈춘시
 에서는 7,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방천풍경구에 용호각을 건설하였

101)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p.34-38”; “满海峰(2009), “新时期中朝关系定位与
 中朝边境地区经济合作发展”, 『辽东学院学报: 社会科学版』, p.37-40.”

102)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p.34-38.

103) “中俄朝在交界地带筹建无国界旅游区”, 环球网, <http://world.huanqiu.com/article/2015-02/5671291.html>, 검사 날짜: 2016.04.29

다. 용호각은 총부지 면적이 8,674.94제곱미터, 총 높이 64.8미터이며 도합 13층으로 구성되었다. 1층은 방천 변경문화체험관, 2층은 방천 역사박물관, 3층은 관광 기념품 매대, 4층은 동북호랑이 전시관 등으로 나뉘며 건물의 제일 위층에는 러시아와 북한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이 건물은 2012년 8월 2일에 정식으로 개관하여 매년 대량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용호각은 향후 두만강삼각주 국제관광 합작구의 중심지로 될 것이다.¹⁰⁴⁾ 생태관광 측에 보면 훈춘경신에 대형 습지 관광지를 건설하며, 훈춘 춘화에 지하 살림관광지를 건설하고 경신과 방천에 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두만강하류 지역을 보건, 양생 관광지, 여름철 피서관광지, 겨울철 스포츠 관광 등 생태 관광기지로 건설할 계획이다.¹⁰⁵⁾

창지투 선도구 관광산업 유한회사에서는 이미 1,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방천조선족민속오락장, 투우장, 씨름장, 널뛰기장 등 조선족 민속오락장을 건설하였다. 방천촌에 이미 17호 가정여관이 개업하였고, 모래공원, 수상낙원, 경마장 등도 기본상 완성된 상태이며 야생동물원도 곧 개업에 들어갈 것이다.¹⁰⁶⁾

이 같은 국제 관광지대 공동개발은 남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중국 민간기업이 중심, 북한과 러시아 기업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항공, 크루즈, 철도, 도로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복합관광이 이루어질 것을

104) 림금숙(2015),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건설에 관하여",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p.187.

105) 焦朝霞(2014), 앞의 글, p.35.

106) 림금숙(2015), 앞의 글, p.187.

전망된다.

4) 환경분야

백여년전까지만 하여도 두만강유역에는 울창한 숲의 원시림이 잘 보전되어 있었고 두만강의 물도 깊고 맑아 물고기가 많고 진주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두만강유역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광산개발과 공업입지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 토양오염, 자연환경파괴가 지역적으로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엔벤지역 등 중국지역에 산림파괴, 대기오염, 토양유실, 생물종감소 등 부분적인 환경문제가 있으며 두만강의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물론 전 체적으로 볼 때 두만강유역에는 아직도 원시림과 다양한 생물종이 보존되어 있다.¹⁰⁷⁾

두만강유역 자연환경의 보전은 관광자원으로 이어져 생태관광 등 관광개발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외자를 유치하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두만강지역에 환경보호 및 친환경적 개발 추진에 해당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부문사업은 TumenNET라고 한다.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러시아, 몽골 등 국가가 다 참여하였다. 2002년 UNDP가 두만강유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환경 분석에 따르면, 생태학적 위협이 되는 환경문제는 토지 및 습지의 쇠퇴, 산림전용, 생물다양성 감소, 수질 및 대기오염으로 제시되었다.¹⁰⁸⁾ 그래서 두만강유역에서의 국

107) 정희성(2011), “두만강유역개발과 환경보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8) UNDP. (2002) , “TumenNET Strategic Action Programme. UNDP/Global

제 환경 협력 사업은 생태환경의 개선,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수질의 관리, 대기 질 관리, 폐기물 관리가 주요 대상사업이 된다.

생태환경 개선 대상사업으로 보면 두만강유역에는 호랑이와 표범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므로 야생생물서식처를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두만강 하구는 두루미 등 철새들의 주요한 서식처인 만큼, 국제두루미재단 등 국제야생동물보호기구와 협력하여 보존사업을 아직 중시하지 못 한다. 이 지역은 산림이 지속적인 감소하고 환경훼손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기존 산림의 보호와 함께 조림과 재조림 등 산림복원사업을 등을 각 협력국가가 중시하고 있다.¹⁰⁹⁾

두만강유역의 수질오염은 개발압력 뿐 아니라, 중국 연변지역 등 인근지역의 도시화개발과 함께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특히 시급한 실정이다.¹¹⁰⁾ 사회와 경제, 환경의 지탱력을 기반으로 두만강유역의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주요 환경문제를 해결한다. 중점 공업오염원 처리공정은 석탄발전소의 탈황·탈질 및 공업용 폐수를 고도처리하고, 공업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공정이다. 두만강유역에서 12·5기간 동안 실시된 중점공업오염원에 대한 처리공정은 총 32개로, 총 투자액은 11억 834만 위안이다. 그 중 탈황과 탈질 먼지제거 등 폐기가스처리공정은 총 14

Environ- ment Facility.”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Portfolio | UNDP”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ourwork/environmentandenergy/focus_areas/water_and_ocean_governance/gef-portfolio.html, 검색 날짜:2016.05.17

109) 최재용·이은재(2005), “두만강유역 환경협력체 구상방안: 두만강유역 환경보전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pp.692-713.

110) 림금숙(2015), 앞의 글, p.186.

개이고 투자액은 5억 353만 위안이며, 이는 중점공업오염원 처리공정에 대한 총 투자액 중 45.4%를 차지한다. 폐수처리공정의 기술개선, 건설 확대, 폐수고도처리 등 폐수처리공정사업은 총 13개이고 투자액은 1억 2,535만 위안, 중점 공업오염원 처리공정의 총 투자에서 11.3%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서 매년 아황산가스 4,238톤, 화학적 산소요구량 1만 9,160톤을 감축할 수 있었다. 현재 엔벤의 천밍지업유한회사(延邊晨鳴紙業有限公司)와 쓰지안바이루지업유한책임회사(延邊石岬白麓紙業股份有限公司)에서는 폐수처리공장의 고도처리공정이, 엔지(延吉)의 티에난공열유한회사(鐵南供熱有限公司)에서는 보일러연기처리 재조공정이 가동되고 있다.¹¹¹⁾

수질관리사업으로는 수질모니터링,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과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식수원지 오염 예방 및 처리 공정, 비점원오염(非点源汚染)¹¹²⁾에 대한 종합처리시범공정, 중요 수역의 수질환경에 대한 종합정비공정 등을 포함한다. 엔지시 제1수원의 지역 환경오염 예방처리 시범공정은 처음으로 두만강유역에서 저류조 기술을 채택하여 상류유역이 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였다.¹¹³⁾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한국, 일본, 러시아 등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킨다. 국경을 초월하는 자연보호수와 습지 등 중점지역에서 생태건설을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

111)강택구 외(2013), "북·중 접경지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 조사(3차)", pp.165-167.

112) 오염원이 특정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의 오염.

113) 강택구 외(2013), 앞의 글, p.166.

하기 위해 북한의 나선 경제개발에 대비하여 접경국가가 함께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정화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 있다.¹¹⁴⁾

요컨대 현재,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은 물류·교통, 산업, 관광, 환경 등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둔 성과는 <표 2>에서 정리한바와 같다.

<표2> 두만강유역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분야	내용
물류·교통 분야	나진-훈춘 고속도로 건설; 나진-하산 철도 건설; 훈춘-원정, 훈춘-경원군 등 기초 인프라 건설; '도로·항만·지역 일체화' 프로젝트
산업분야	나선 국제수출가공무역단지 개발; 화력발전소; 석유정제공장, 제철소 등 건설; 지하광물자원을 개발
관광분야	"두만강 대삼각 관광벨트"; 무비자관광; 항공, 크루즈, 철도, 도로관광을 연계한 복합관광 수송망을 구축
환경분야	TumenNET; 국제야생동물보호기구와 협력; 산림복원사업 협력; 대기오염관리사업; 수질관리사업

114) 김천규 외(2014), 앞의 글, pp.83-87.

2. 압록강유역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형태

압록강유역에 북·중 초국경개발 협력은 주로 교통·물류 분야, 관광분야, 산업분야 등 형태가 있다.

1) 교통·물류 분야

중국 동북지역은 세계적 물류노선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특히 압록강유역이 접경지역은 더욱 그렇다. 기존 황금평경제지대는 별도로 압록강국제경제특구 공동개발을 추진할 경우 신의주-단동 연결철도 및 교량 확충, 신의주특구 배후도로망 신설,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신설 등을 통해 배후 접근교통망을 계속 추진한다.¹¹⁵⁾

중국은 압록강유역 북중 접경지역에는 랴오닝연해고속도로, 단동-파렌 고속철도, 신양-단동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와 국도뿐만 아니라 단동-환런, 번시-환런, 압록강대교 등의 성급도로가 건설되었다. 단동동강항이 입지해 있는 육·해상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단동항에는 20만 톤 급 광석부두와 단동항 20만톤 급 항로, 2014년부터 해양홍(海洋紅)신항구를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항구 건설이 아직 갖추어져 있다.¹¹⁶⁾

115) 김천규·이상준·임영태·이백진(2015), 앞의 글, pp.69-93.

116) 김천규 외(2013), 앞의 글, pp.75-77; “丹东港”,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DJBSjcoUs_fsoQCNke4OUICAVC5A0cqKQ9xp9cEaPeUzNawFvFAwGDZfJxSbOejasteSzIB1rU7AQDuGNPaO2K, 검색 날짜:

지금 북한은 신의주 특구 배후철도망 신설, 신의주 - 단동 철도 전용교량 신설, 신의주 - 단동고속도로 시설, 고속도로 전용교량 신설, 신의주항 항만 시설, 현대화, 단동동강항 경제개발구의 물류기지 개발사업에 의 참여 등이 있다. 117)

2009년 7월 1일 중국 국무원은 ‘요녕연해 경제 발전 계획’을 국가 전략의 하나로 정식 비준하였다. 동년 10월에 중국 원자보총리 북한을 방문 시, 양국 간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논의하였다. 당시 북한과 중국은 신의주와 단동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하였다.¹¹⁸⁾ 2010년 12월 30일 단둥시(丹東市)신구에서 정초식을 하였고 2015년 4월에 북한측 신 압록강대교 보조도로 및 진입교를 착공하였다. 단둥은 북·중 무역의 70%가 오가는 주요거점으로, 그 동안 1937년에 건설된 압록강철교를 통해 지금까지 양국의 무역이 이루어져 왔다. 건설이 이루어지면 연간 100만 톤 규모의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된다.¹¹⁹⁾

또한 단둥과 따렌을 연결하는 수송통로인 동변도철도는 2015년

2016.5.23 ; “海洋红港”,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K36kAEccqLUa2WYhZuFE5SAi_m0XVzkqvqBfb_apHQvXPj7kOYO9IKRrU3njJFizrLo0A2X9H3SATGzKxtFQVq, 검색 날짜: 2016.5.23

117) 김수한(2014), “최근 북중 접경협력 동향과관련 법제 분석”, 『INChinaBrief』, 인천발전연구원, p.4.

118) 이숙자(2010), “최근 북한의 경제특구 재추진: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POSRI경영연구』 제10권 제2호(포스코경영연구), pp.203-223.

119) “新鸭绿江大桥”,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zPuKPV10QPSM6rwlX4QnFnaBqzKrMarOEnsSmmRqHkcD6faeBQ2SdDAVoyBinM0pldJtGkclXlpPfrXKAJK3Ha>, 검색 날짜:2016.05.17

12월 17일에 완고해서 운영하였다.¹²⁰⁾ 이 철도는 중·러, 중·북 간의 변경지역을 따라 중국의 동북을 연결하고 북한과 러시아를 거치는 동안 10여 개의 변경세관과 연결된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현재 단둥-신의주, 도문-남양, 집안-만포 등으로 북한과 철도 연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동변도철도는 이 3지점 모두를 경유한다. 이 철도를 이용해 대외개방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중 접경지대를 지나므로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¹²¹⁾

2) 관광분야

압록강유역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중·북 양국은 이미 국경관광, 1일관광¹²²⁾ 등을 위주로 한 관광협력을 진행하여 북한 내 관광에 대한 중국관광객수가 점차 증가하고 관광수입도 증대하고 있다. 이후 협력내용을 더욱 확대하여 민속관광, 생태관광, 자동차관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관광협력이

120) "丹大快铁将开通 丹东到大连仅2小时, 沈阳网 ,

"<http://news.syd.com.cn/system/2015/11/10/010876928.shtml> , 검색

날짜: 2016.5.14

121) 장개평(2013), "2000년대 후반 북중 경제협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122) 1988년 4월 18일 단둥시 국제 여행사에서 조직한 첫 번째 중국 관광단 44명이 버스로 압록강대교를 통과하여 신의주로 들어감으로써 역사적인 '신의주 1일 관광'이 시작되었다. 1992년 이후 중국과 북한은 양국간 회담을 통해 관광노선을 묘향산과 평양, 개성 관문점, 금강산 등지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1일 관광'이 '5~6일 관광'으로 확대되었다.

있다.¹²³⁾

생태관광자원의 경우, 압록강과 백두산 등 유명한 천연관광 있고 민족·풍속 측에 보면 조선족, 만족 등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관광개발 잠재력이 높다. 2002년 지린성 지안시와 단둥시, 신의주에서 공동으로 ‘압록강 국제 관광절’ 등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포함한 약 2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¹²⁴⁾

북한은 아직 압록강유역에 대한 전략적 관광지대개발규획이 없고, 반면에 중국 단둥시 관광개발규획은 압록강유역에 총 7개 구역(오룡산관광구, 대루도관광구, 청산고관광구, 봉황산관광구, 영웅의도시관광구, 후산관광구, 압록강백미문화관광구)으로 구분하여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¹²⁵⁾이에 따라 압록강유역 국제관광지대 조성은 중국 측 압록강유역 관광발전 전략을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관광 상품과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의 관광 협력 노선은 1) 단둥 - 신의주, 2) 베이징 (北京) / 선양 (沈陽) - 평양 - 개성 - 묘향산(왕북 항공 이용), 3) 지안 - 남포 관광, 4) 창바이현(長白縣) - 혜산/삼지연/ 청진 관광, 5) 린장(臨江) - 중강군 관광 등의 국경 관광이

123) 최철호(2011), “북중 관광 협력의 현황과 전망”, 북한경제리뷰, 10월호, p.81.

124) “2015第十二届东亚(辽宁)国际旅游博览会暨丹东鸭绿江国际旅游节”,
http://www.eshow365.com/zhanhui/html/91812_0.html, 검색날짜:
2016.05.09

125)“辽宁省旅游业十一五发展规划”, 中国投资资讯网, <http://www.ocn.com.cn/free/200801/lvyoujiudiancanyin028.htm>, 검색 날짜:2016.5.8.

있다.¹²⁶⁾

단동 - 신의주 노선은 관광업이 발달한 단동지역 중심으로 북중간 합의에 따라서 ‘관광특구(숙박 및 오락시설 설치와 관광비자간소화 등 관광여건 개선)’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압록강 체험 및 야경관람, 요트관광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베이징/선양 - 평양 - 개성 - 묘향산 노선은 베이징부터 평양까지 항공을 이용해서 관광코스이다. 평양에서 버스타고 고려박물관, 김일성광장, 평양지하철, 국제우정전시관, 묘향산 등 관광지를 포함해서 이루어지는 관광코스다. 지안 - 남포 관광노선은 지안의 고구려 유적, 압록강 생태자원, 강계를 통해서 관광지를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다. 창바이현 - 혜산/삼지연/청진 관광 노선은 백두산 관광지 중심으로 중국쪽에 창바이현을 통한 접근하고 북한 쪽에서는 삼지연을 통해서 접근이 용이하여 독자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다.¹²⁷⁾

3) 산업분야

신의주-단동지역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황금평지역의 입지적 한계와 확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협력사업 대상지역은 신의주시가지 주변에 추진되어야 한다. 압록강유역 접경지역의 풍부한 자원환경은 자원형 공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¹²⁸⁾

126) 최철호(2011), 앞의 글, p.82.

127) 김천규 외(2013), 앞의 글, pp.111-116; “中朝所有旅游路线”, 欣欣旅游,

<http://lxs.cncn.com/74482/1191705>, 검색 날짜: 2016.05.07.

2010년 3월 중·북이 협력하여 압록강발전소, 즉 망강루발전소(望江樓水電站), 문악발전소(文岳水電站)를 착공하였으며, 중북 쌍방에게 혜택을 주는 수력발전소가 될 것이며, 향후 중·북 간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개의 발전소는 압록강유역의 지린성 지안시(吉林省吉安市)에 위치해 있어 지린성의 중점사업이 될 것이다. 해당사업은 2016년 3월 15일에 이미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완공시기는 2016년 10월로 예상된다.¹²⁹⁾

북·중 점경지역에 철강 자원이 풍부해서 기계공업과 관련된 비철금속 자원업을 발전시켰다. 이 지역은 주로 지린성에 통강(通鋼)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에너지 산업은 석탄채굴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면서 압록강유역의 지방정부는 에너지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있다.¹³⁰⁾

요컨대 압록강수자원 공동개발의 주요 내용은 이수와 치수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압록강유역의 수해방지, 기존 수력시설의 개보수, 기존 댐의 다 목적화, 신규 발전소 건설이 핵심내용이다. 북한의 신의주공업지구, 강계 공업지구가 압록강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측면 보면 개발의 여건이 유리하는 편이다.¹³¹⁾(〈표3〉는

128) 김수한(2014), 앞의 글, p.14.

129) 中朝边界鸭绿江望江楼和文岳水电站开工, 中国电工网, <http://www.chinaet.net/news/201603/82440.html>, 검색 날짜:2016.05.02

130) “吉林通钢”,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UMB9OTUI3Pe1tge5PsdVNuUpMCw4-YhLxYrMoHdnkDSclly3B4Ll8z7lwPXOxewauSU9byde8R9KQ-0ZPulp-a>, 검색 날짜: 2016.05.11

압록강유역의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개발형태이다)

<표3> 압록강유역의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개발형태

분야	내용
교통·물류 분야	신의주-단동 연결철도 및 교량 확충; 라오닝연해고속도로; 단동-파렌 고속철도; 신양-단동 고속도로; 신압록강대교 건설; 동변도철도 건설
관광분야	국경관광; 1일관광; 민속관광; 생태관광; 자동차관광; 압록강 국제 관광절; 중국 단둥시 관광개발규획
산업분야	망강루발전소; 문악발전소; 통강(通鋼)그룹

131) 전병곤(2015), 앞의 글, pp.105-140.

제4장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기능

제1절 정치·안보적 기능

1. 對 중국의 정치·안보적 기능

첫째, 중국 주변 국제환경 보장. 1990년대부터 중국의 대외 전략의 목표가 서방부터 동아시아로 전환하였다. 신흥 강대국으로써 중국은 세계 경제 일체화 추세에 따라서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중국은 지경학적 접근으로 인접국과의 ‘경제적 이익공동체’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3년 10월 24-25일 중국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주변외교공작좌담회(周外交工作座談會)’를 소집하여 주변국가와의 ‘운명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주변국가와의 외교원칙을 ‘이웃나라와 화목하게(與鄰爲善) 벗어나 지내(以鄰爲伴)고, 친화(親)·성의(誠)·호혜(惠)·포용(容)의 이념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베이징포럼(博鰲亞洲論壇)에 참석하여 주변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하여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의 지역질서 제창에 동참 또는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AIIB 등과 같은 아시아 구상 전략은 바로 이러한 중국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의 전략의도와 같은 맥락이다.¹³²⁾

132) 欧建锋(2013), “跨区域国际经济合作及中国的对策”, 『国际经济合作』第5期; 夏

북·중 초국경개발협력 전략은 중국의 동북아지역의 협력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나아가 대북 국경무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무역거래를 크게 촉진시킬 것이다. 중국은 북·중 초국경개발협력 중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주도권을 맡아 선도적으로 개발에 나서게 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참여 의식을 한층 제고시켜줄 것이다. 옌벤은 중국-러시아-북한 삼국 국경인접지대에 총 11개 개항장이 있어 국가로부터 전 방위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정책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동북 옛 공업기지를 진흥 정책, 서부대개발 정책, 국경소수민족지역 정책과 국가급 개항장인 훈춘의 “국경경제협력구역, 중-러 상호무역구역, 수출가공구” 3개 구역 통합의 운영메커니즘과 특수혜택정책이 포함된다. 133)

중국의 변경 지역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동 사업은 지린성 차원의 개발 계획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해로의 해상통로 확보를 전제로 한 북한 및 러시아 등과의 접경 지역과 남한, 몽골, 일본을 포함하는 환동해권 연계 개발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창지투 사업의 성공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 구도와 정세에 있어 향후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증가하게 하고 있다. 134)

润国, (2015), “冷战后中朝经贸与边疆发展之互动研究-以鸭绿江流域为考察对象”, 延边大学 博士学位论文; 肖洋(2014), “跨境次区域合作与丝绸之路经济带 - 基于地缘经济学的视角”, 『和平与发展』第4期. 참고

133) 欧建锋(2013), 앞의 글, p.37.

134) 장흥석(2012), 앞의 글, p.41.

중국은 초국경개발협력 사업을 통해서 접경국가 간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협력의 증대를 불러올 것이며 국가 간의 신뢰 구축만이 아니라 국간 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분야에서도 협력방안을 논하고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 지역안전의 기여.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노후 공업기지를 진흥하는 경제발전 전략은 중국 국내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이다. 중국의 경우 국내 안전적 측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국경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의 “점·선·면”식 개방은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엄청난 발전격차를 야기 시켰다. 특히 동북3성은 계획경제시기 국가 중추산업지역에서 후진지역으로 전략하여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산업노동자의 ‘면직’ 실업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3성은 심각한 ‘삼농’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¹³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부가 변경 지역의 개발을 위해 동변도 철도(東邊道鐵路), 신 압록강대교 부설, 랴오닝연해 개발 개방 등 동시 전개되는 개발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대외 개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창지투 개발 계획 중에서 북·중 경제협력 차원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변 지역은 소수민족 지역으로 중국 중앙 정부가 동시 추진하고 있는 ‘서부 대개발’에 대한 우대 정책, ‘동

135) 郭文君, “图们江区域合作开发中延边经济发展战略研究”,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2009); 李丹(2014), “长吉图开发开放与中韩合作: 兼谈延边朝鲜族自治州的作用”, 『디아스포라연구』 제8권 제2호.; 汤碧(2007), “跨区域国际经济合作的发展与我国策略”, 『国际经济合作』 第1期, 참고.

북진홍정책의 노공업기지 진흥정책',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 등 정책의 일환으로 대내외적으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엔벤조 선족 자치구에 관련한 방안은 국내 화물의 우회 운송량이 일정한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러 간 훈춘-하산, 북·중 간 훈춘-나선 초 국경 경제협력지구의 건설을 가속화하며, 각기 특색 있는 국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두만강 핵심 지역의 대외 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중·러 간, 북·중 간 초 국경 경제협력 지구의 건설을 완료하는 등 '창지투 개발계획'의 총체적 완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¹³⁶⁾

셋째,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를 지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환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다. 두만강유역과 압록강유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초국경개발협력 사업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강구하고 있다.¹³⁷⁾

2. 對 北 韓 的 政 治 · 安 보 策 略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계속된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으로 국제 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

136) 박동훈(2010),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고’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137) ZHANG XUAN(2013), “북·중 경제협력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1-37.

고 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유엔 안보리가 동년 10월4일 보리결의 제1718호를 발표하여 북한을 제재하였다.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 군용장비나 제품 및 기술자원, 핵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리스트에 등재된 관련 물자, 장비, 제품, 기술지원이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였고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북한 인력의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138)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엔안보리는 1874호 결의안으로 통과하였으며 이 결의안은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제재 등을 담고 있다. 139)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안보리는 2094호 결의안을 통과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 검색 의무화, 대량 현금(bulk cash) 이전 규제, 금수 조치 강화 등 북한의 WMD 개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권능과 수단을 부여하였다. 140)

2016년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 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한 제재결의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초점이 이었고, 이번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대응은 물론, 북한 관련 전반에 영향 줄 수 있는 제재 포괄적 망라된다. 주요내용은 무기거

138) 이평규(2011),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8.

139) 이평규(2011), 앞의 글, p.69

140) 김한권(2016),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p.8-12

래에 대해서 소형무기 수입금지, 군사/준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자문관 초청 등 금지하고, 추가로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제재대상 지정하였다. 그리고 해운·항공·운송, 희산 네트워크, 대량살상무기 수출 통제 그리고 금융거래, 사치품 및 인권문제 등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141)

이런 외부적 환경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과 경제적 공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조적으로 중국은 대북제재에 동참하였으나 그 태도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편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북·중 관계는 기존에 비하여 구심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과 중국이 우호관계를 과시해 왔던 고위층 간의 방문은 신진핑-김정은 시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이러한 냉각된 정치관계와 대조적으로 경제관계는 조용히 발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중국에게 시장경제 방식을 배울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창구이다. 2011년 8월에 길림성 정부 허가로 투먼조선공업단지((圖們朝鮮工業園地)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여기는 북한 라진-선봉지대 개발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대북 무역가공 기지이다. 이 공업단지의 면적은 5km², 총 투자 20억 위안(元), 북한투자위원회와 2만 명 노동자 고용계약을 현재 북한의 능라도회사(綾羅島會社), 경흥회사(慶興會社), 북한컴퓨터중심(朝鮮電腦中心: KCC) 등 3개 회사와 6차례에 걸쳐 협장으로 625명

141) “[외교부 카드뉴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http://blog.naver.com/3_year_plan/220645208595, 2016.03.04.

노동자가 유입된다. 현재 본 공업단지는 1,500명의 공동생활시설 완공하였고 8개 합작 항목이 가동 되었다. ¹⁴²⁾

그리고 2012년부터 중국의 단둥시에서 북·중 무역 박람회를 개최되었다. 2015년 10월 현재까지 총 4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부터 북한은 100여 개 기업을 파견하였다. 2014년까지 북·중 무역 박람회는 2000여 개의 해외업체가 참가해 3억 7000만 위안 가량의 계약수주고를 기록하였다.¹⁴³⁾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확대에서 과제민족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의 경제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북한의 경제난 타개 특히 시장경제학습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수많은 조선족들이 경제적 이유로 고향을 떠났지만, 창지투 개발규획으로 연변 자치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북한의 대외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조선족 사회는 북한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만개 조선족 기업은 북·중 초국경 사업을 계기로 북·중 경협 및 남북경협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 속에 있을 때 남한 민간단체의 지원도 많은 부분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많은 조선족기업들이 대북 투자 및 변경 무역 활동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시장경제도입과 대외개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¹⁴⁴⁾

142)图们市：中国（图们）朝鲜工业园项目，吉林省县域网，<http://www.jlxy.gov.cn/news.aspx?id=9490>，검색 날짜: 2016.5.7

143)第三届中朝经贸文化旅游博览会丹东开幕，中国经济网，http://www.ce.cn/xwzx/gnsz/gdxw/201410/16/t20141016_3717400.shtml，검색 날짜:2016.5.6

2010년 북한 국가개발은행의 창구로 지정된 ‘조선대풍 국제투자그룹’ 총재로 조선족출신인 박철수씨가 위임되어 북한의 대외 개방과 외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선족 기업의 활발한 변경 무역은 북한 경제의 발전과 대외 개방에 일조할 것이다. 최근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진입했고, 남북 교류는 단절상태에 놓여 있다. 오히려 조선족은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통해 선진적인 국제화 의식을 갖추었다.¹⁴⁵⁾

제2절 경제적 기능

1. 對 중국의 경제적 기능

중국 1970년대에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하였고 1978년 광둥성의 경제총량은 랴오닝성의 80%였다. 동북진흥전략을 실시하기 전인 2002년 동북 3성의 경제총량은 광둥성의 85%밖에 되지 않았다. 이 시기 동북 노공업기지는 오랜 기단 쌓여 있던 체제성, 구조성의 모순이 점점 드러나 많은 국유기업이 곤경에 빠졌다. 대량의 노동자들이 정이 해고를 당했으며 지역경제가 침체상태에 처한 이른바 “동북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¹⁴⁶⁾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진흥동북전

144) 장홍석(2012), 앞의 글, pp.65-68.

145) 김범송(2011),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 전망: 옌벤조선족자치주 지정학적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1호, pp.1-28.

146) 李铁立, 姜怀宇(2004), 앞의 글, pp.14-17

략”을 제시하였다. 동북지역의 진흥전략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공업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수입기계류를 국산품으로 대체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공업 부활이라는 동북지역 개발 목표는 단순한 지역격차 시정이라는 요구가 아닌 중국의 지속적인 고성장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중국의 공업화 단계는 그 동안의 경공업 위주 공업화에서 경·중공업의 동시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 장치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생산 공정인 “풀 세트형 산업기반”을 갖춘 동북지역 중공업의 잠재력을 저극 활용하려는 것이다.¹⁴⁷⁾

중국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창지투 지역과 주변국 간 무류협력을 비롯한 경제협력은 중국의 산업기반과 주변 국가의 자원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두만강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창지투 지역을 포함한 헤이룽장성, 라오닝성을 훈춘-나진과 밀접히 연결시킴으로써 대외 통로를 확보하여 중국 주도의 동북아 경제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비준한 변경지역 개발계획이자, 변경도시 연해 지역과 내륙 배후지를 연동하는 새로운 개혁개방 모델로서 기타 변경지역(몽골, 러시아)의 초국경 광역경제권 형성에도 파급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창지투지역의 발전은 지린성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동북진흥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¹⁴⁸⁾

그리고 국경지역의 경제협력은 전략적 배치로 국경지역과 내륙을 통합하였다. 두만강유역의 개발계획을 중국 두만강 개발계획

147) ZHANG XUAN(2013), 앞의 글, pp.57-65.

148) 김수한(2014), 앞의 글.

의 우선순위 1위는 창지투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창지투지역과 국내 지역의 연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만강자유무역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및 건설하는 것이다.

신압록강대교 건설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으로서는 라오닝 연해 개발을 통해 따렌-단둥-신의주를 연결하고, 창지투개발을 통해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동해 진출을 통한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여 낙후된 동북 3성 진흥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지린성이 자립 경제의 능력이 현저히 제고된 기초 위에서 국가와 지린성 정부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두만강 개발을 이용한 지린성 대외무역항구 개발 방안은 1980년대 말 동북아 지역 관련 전문가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2003~2008년 동기간 지린성의 GDP 연평균성장률은 14.3%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 안에 중국 전체의 평균 성장률 10%를 월등히 초월한 수준이다. 지린성 경제의 고속 성장은 지린성 정부의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수요 및 염원을 현저히 제고시켰다. 현재 창춘과 지린은 지린성의 특대도시로서 GDP는 전성(全省)의 60%를 차지하는 등 각 방면의 환경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¹⁴⁹⁾

그리고 국경무역의 발전은 민족어무의 안정추진과 민족관계융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2. 對 북한 의 경 제 적 기 능

북한 경제는 1970년대 후반 빠르게 성장하여한 때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산업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농산품은 국내 수요 충당을

149) 장홍석(2012), 앞의 글, p.40.

넘어서 일부 수출까지 가능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가장 힘든 경제 발전단계를 겪으면서 북한에는 산업생산 정체 뿐 아니라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까지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을 가장 가까운 발전 목표로 삼았다. 21세기 들어 북한은 경제정책을 끊임없이 조절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2002년 ‘7·1 개혁’ 이후의 대외경제법규에 대한 일련의 조정이다.¹⁵⁰⁾

최근 김정은 체제 출범과 그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 없이는 김정은 체제의 안착도 장담할 수 없다. 김정은의 최대 고민 역시 경제 문제 해결 일 것이다. 그런데 화폐개혁 실패, 계획경제 실패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지적이 있다.¹⁵¹⁾

북한 경제 실태는 개혁 개방과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이 유일한 방안이다. ‘포괄적인 금지’로부터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금지’로의 전환은 국가 주권과 안보에 손상 없이 특정 지역과 국가 전체에 그 차이만큼의 경제 협력 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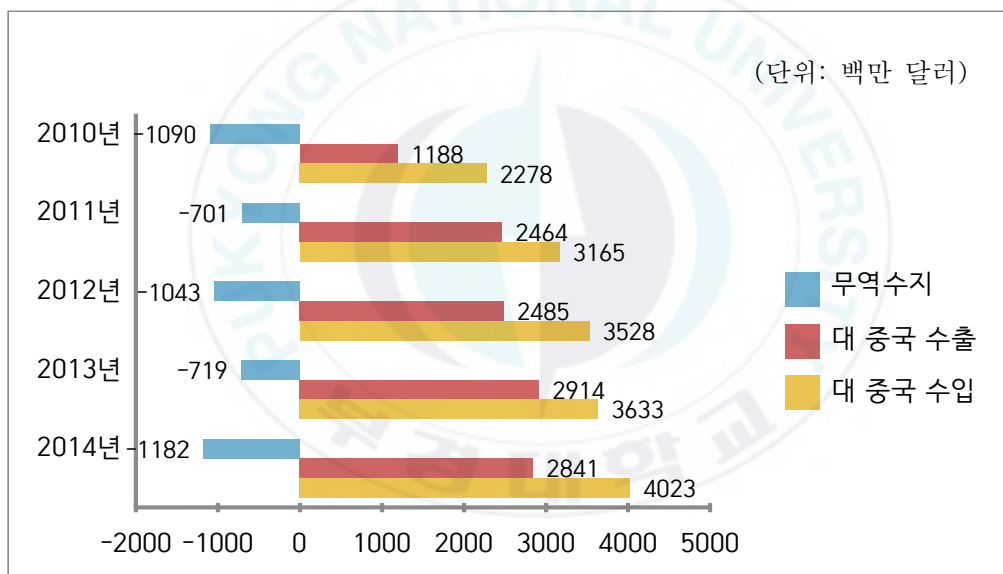
북·중 무역 박람회에 따라서 북·중 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인 확대하는 상황이 보인다. 아래와 같이 <표4>에 따라서 북·중 간 교역은 2010년 34.7억 달러에서 2014년 68.6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

150) 만하이평(2012), “북중관계 정리의 중요성-상생하는 북중 국경 경제협력의 미래 위하여”,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 p.65.

151) 원동욱 외(20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81.

18.6%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전체 교역 중 대중국 교역의 비중은 2010년 57%에서 2014년 69%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¹⁵²⁾ 북한의 대중국 수입 총액은 2010년 22.78억 달러에서 2014년 40.23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 15.3%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총액은 동기간 11.9억 달러에서 28.4억 달러로 연평균 24.4%씩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서 對 중국 무역수지적자 규모는 2010년 10.9억 달러에서 2014년 11.8억 달러로 확대하였다.¹⁵³⁾

<표 4> 북·중 교역 추이(2010~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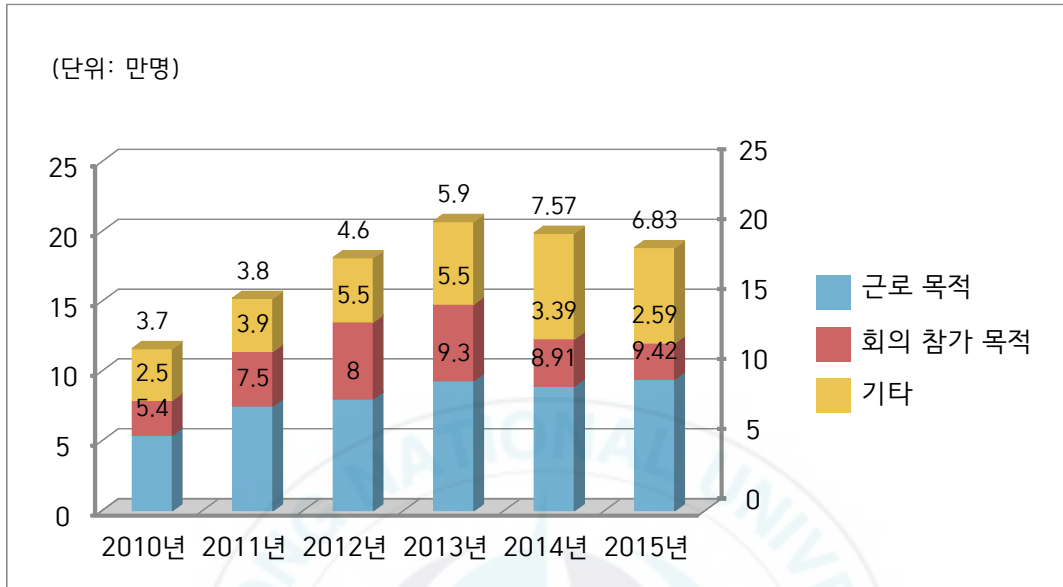


출처: 이해정(2015),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강화된 한중관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달성 기반으로 활용하자”, 제15-30호, pp.1-3.

152) 이해정(2015),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강화된 한중관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달성 기반으로 활용하자”, 제15-30호, p.1.

153) 이해정(2015), 앞의 글, p.3.

<표5> 목적별 중국 북한 입국자 추이(2010~2015년)¹⁵⁴⁾



출처: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政务公开" 자료로 재구성, 검사날짜: 2016.06.02.

<표5>를 보면 북한과 중국 간의 인적교류는 활발해 지고 있다. 2015년 12월까지 중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의 총 인원수는 18.84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보다 1.6배 증가하였다. 근로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북한 인력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근로 목적으로 중국 내 북한의 입국자가 비중은 약 전체의 50%에 차지하는 것은 비중이 매우 높다. 중국 내 북한 근로자는 2010년 5.4만 명에서 2015년에 9.42만 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에 북한은 랴오닝성 단둥, 지란성 투먼과 훈춘 등에 각각 2만 명의

154)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 政务公开" 자료로 참고

, http://www.cnta.gov.cn/zwgk/lys/201606/t20160622_774985.shtml,

검사날짜: 2016.06.02.

노동자를 공급하기로 중국 지방도시와 협정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북중 간 접경지역 내 북한 인력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¹⁵⁵⁾ 북한은 경제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중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외화벌이가 필요한 상황이며, 중국의 동북2성은 급격한 경제 성장둔화, 노동력부족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지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북·중 협력이 심화 발전되고 있다. 중국의 창지투 사업을 비롯한 변경 사업 계획은 개혁 개방에 성공한 경험을 가진 체제전환국이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주도함으로써 북한이 개혁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 개방 실현 가능성은 긍정적이다.¹⁵⁶⁾

북한정부는 질서조정을 실행한 후 2002년 9월 12일에 신의주 특별행정구역(이하 “특구”)을 설치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신의주 특별행정구역법>의 반포를 표지로 이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게 하였다. 2002년 10월에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역을 설립하였다. 계획 중인산업구조 배치로는 금융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 첨단기술 산업과 현대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¹⁵⁷⁾

2011년 6월 8일 관심을 집중시켜 온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프로젝트 착공식이 열렸다. ‘공동개발, 공동관리’의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협력 프로젝트는 협력모델로 경제의 ‘조혈’ 능력을

155)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4), “중국내 북한 노동자의 입국 현황과 시사점”, p.5.

156) 원동욱 외(2014), 앞에 글, p.81.

157) 우영자(2011), “최근 중·북 경제협력의 실태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끌어올리겠다는 북한의 발전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북·중 국경지역 경제 개발과 협력은 결국 기존의 북·중 관계모델을 바꾸어낼 것이며, 한 때 단지 중국의 ‘완충지대’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던 북한은 앞으로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북한은 지원과 ‘수혈식’ 원조 모델을 뛰어넘어 스스로의 ‘조혈’ 능력을 실현할 것이다.¹⁵⁸⁾ (<표6>은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경제적 기능)

<표 6>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경제적 기능

對 중국의 경제적 기능	중국은 국경지역의 경제협력은 전략적 배치로 국경지역과 내륙을 통합
	창지투 지역과 주변국 간 무류협력을 비롯한 경제협력은 중국의 산업기반과 주변 국가의 자원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두만강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큼
	국경무역의 발전은 민족어무의 안정추진과 민족관계융합을 강화
對 북한의 경제적 기능	국가 주권과 안보에 손상 없이 특정 지역과 국가 전체에 그 차이만큼의 경제 협력 효과가 있음

158) 주장환(2014), “북·중 초국경 협력 현황과 시사점”, 『INChinaBrief』, 한신대학교.

	북·중 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인 확대 (2014년 북·중 교역은 68.6억 달러로 5년 간 연평균 18.6%씩 증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는 프로젝트협력모델로 경제의 ‘조혈’ 능력을 끌어올 수 있음



제5장 결론: 요약과 전망

1980대 중반 이후 국가들은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인접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신행 경제구 육성에 박차를 가하여 자국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왔다. 중국과 북한은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의 접경지대에서 초국경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은 20여년의 역사를 겪으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양국의 정치·안보 및 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적 수준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연구내용에 대한 요약을 토대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추세를 전망할 것이다.

제1절 요약

일반적으로 초국경개발협력의 절차는 협력 목표 확립→영역의 설정→형식의 선택→기제의 설계→협력과정에서의 동태적 시정 등 프로세스가 있다. 북·중 양국의 초국경개발협력도 예외는 아니다. 양국은 접촉과 합의를 토대로 두만강유역과 압록강유역의 개발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경제 협력구를 플랫폼으로 삼아 실천과정에서 수정·개선해 왔다.

우선 법·정책적 측면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국내 경제발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진흥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두만강유역 북한과의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

을 실행 하였다. 그 후 중국은 경제발전 재도약, 산업구조의 개선, 자원형도시의 지속 가능발전 발전, 연변지역의 개방도 확대 등 취지하에 “랴오닝연해경제벨트지역발전계획”, “창지투 개발개방 선도구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동북지역 12·5계획”에 귀속시켰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외국투자은행법’, ‘외화관리법’, ‘외국인 세금법’ 등 법을 쏟아냈다. 특히 2010년 “북한경제개발10개년계획”을 발표하여 청진 및 나선지역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공업지구 개발, 교통망 개발, 에너지 개발, 농업개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등 북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2010년에 북한은 중국과 나선지대 공동개발·관리 계획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초국경지역의 유형은 소외된 접경지역협력, 공존하는 접경지역협력, 상호의존적인 접경지역협력, 그리고 통합된 접경지역 협력 등 4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공존하는 접경지역 협력은 안정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이 함께 존재하고 상호의존적 협력은 항시적 안정성이 보장 지역으로서 경제, 사회 보완성이 증대에 따라서 접경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제고되는 것이다.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은 변경 공존하는 접경지역협력으로부터 상호의존적인 접경지역협력¹⁵⁹⁾으로 과도하고 있다. 현재 북·중 국경무역은 양국의 정치·안보적 사안에 크게 영

159) 즉 양측의 정치, 경제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저발전 국가는 선진 국가의 기술과 자금을 유입을 위한 개발구를 설립하여 국내 기타 지역과 차별화를 시킨다.

향을 받지 않고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은 기반시설 및 관광을 포함한 한 각종 자원에 대한 공동개 등내용을 중심으로 두만강유역과 압록강유역에서 물류단지, 철도·도로·항만 교통기반 시설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기능은 정치·안보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국내 안전적 측면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은 국경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의 “점·선·면” 식 개방은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간의 엄청난 발전격차를 야기 시켰다. 특히 동북3성은 계획경제시기 국가 중추산업지역에서 후진지역으로 전락하여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산업노동자의 ‘면직’ 실업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3성은 심각한 ‘삼농’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중간의 초국경개발협력은 새로운 경제적 성장축으로 지역안정의라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대 북한 영향력 확대와 역내 협력 주도권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핵 위기 특히 2002년 말 2003년부터 불거진 제2차 북핵위기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6년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일련의 도발행동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색된 남북한관계로 인하여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화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은 북한의 경제난 완화에 기여할 것은 물론 그들의 국제사회의 고립타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북·중 변경무역을 통해서 각종 생활필수품과 식량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유입된 중국산 제품들은 북한 내 유통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 중국으로 부터의 생활필수품 조달이 여의치 않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북·중 간의 교역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중국의 對 북한 교역 및 자원과 같은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는 당면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난 완화와 북한 경제의 위기상황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¹⁶⁰⁾ 특히 최근 중국 국경지역의 북한공업단지, 북·중 박람회 등은 북한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

제2절 전 망

초국경개발협력은 참여 국가 간의 시뢰가 필수 이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 .표준화를 요구하게 된다. 북한과 중국은 전통우호 국가이다. 그러나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은 그 수준, 규모 등 여러 가지 지표는 예의치 않은 형편이다 그 동안 양국의 협력 현재와 그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제기된다.

첫째, 군사와 안보 문제는 초국경개발협력의 취약성을 초래한다. 로버터. O. 코헤인은 『헤게모니 이후』에서 “국제정치에서 불확실성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군사와 안보가 경제에 주는 손

160) 최수영(2010),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p.125.

해를 막을 수 있는 기제는 존재하지 않다 ”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북한이 처한 국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북한과 주변국 간의 경제협력은 저수준, 소규모에 머물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은 경제발전으로 식량문제 해결, 경제회생을 도모하고 있으나 핵개발 고수로 국제사회의 제재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정이다. 이는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¹⁶¹⁾

둘째, 북한의 개방도가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북·중 접경지역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낙후된 변경지역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의 동북진흥전략이 시행되기 전의 동북3성은 경제개혁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며, 북한은 경제난과 배타적인 대외정책으로 개발 의지를 갖지 못했다.¹⁶²⁾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개발구 경험을 수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으나 북한은 국내기업이 함께 입주하고 국내경제와 연계를 갖는 개방적 특구를 운영하기보다 외자기업만 입주하며 국내경제와 연계가 없는 폐쇄적 특구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의 파급효과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접경 지역의 개발에서 북한은 아직도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접경 지역 개발로 인해 외자 유치

161) 로버트 O. 코헤인(2012), 『헤게모니 이후 : 세계정치경제에서 협력과 불화』, 고양: 인간사랑.

162) 전병곤 외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 - 종합 요약보고서,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다층적 초국경개발협력방안』, 서울:통일연구원, pp.8-24.

위한 법정 개정, 투자환경 개선, 중국과의 협력 태도 등에서 진전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해고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 보장 등 체계적인 법·정책적 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특구 인프라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국가 추진정책과의 실행으로 주변국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특구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행정 서비스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¹⁶³⁾

셋째, 동북아지역 다자협력에서 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중 국경지대는 경제발전 수준, 국제화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틀 내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황해지역에는 중국의 따론펬, 단둥; 북한의 신의주, 남포, 해주; 한국의 인천, 군산 등 도시가 분포되어 있다. 최근 중국, 북한, 한국은 이러한 도시 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동북아지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시점에서 주변국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초국경 물류수송, 투자환경의 개선, 한·중·북 공동 직업교육, 통신망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항목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의 아젠다가 될 수 있다.

163) 이해정(2015), 앞의 글, pp.1-6.

참 고 문 헌

『 한국 어 참 고 문 헌 』

1. 단 행 본

- 김수한·최종원(2012), 『북·중 접경협력 분석과 인천시의 대응방향』, 인천발전연구원
- 김천규·이상준·임영태·이백진·이건민(2014), 『동북아 평화변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개발협력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김천규·이상준·문정호·임영태·이건민(2013), 『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개발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로버트 O. 코헤인(2012), 『헤게모니 이후 : 세계정치경제에서 협력과 불화』, 고양: 인간사랑.
- 전병곤 외(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 - 종합요약 보고서,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다층적 초국경개발협력방안』, 서울:통일연구원.
- 최수영(2010),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과급효과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 최수영(2012),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한반도 경제』, 통일연구원.

2. 논 문

- ZHANG XUAN(2013), “북·중 경제협력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ZHANG HAN(2009), “중국-북한 소지역 경제협력구의 가능성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주원(2013), “중·조 국경의 다층적 의미: 역사 속의 변경 확대와 현재의 국경 강화”, 『역사문화연구』 제45집.
- 강택구 외(2013), “북·중 접경지 개발현황 및 환경상태 조사(3차)”, 통일연구원.
- 김 철(2000), “두만강유역 북·중 연계지역 개발현황 및 당면한 문제: 훈춘지역 국토개발을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4호.
- 김범송(2011),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 전망: 연변조선족자치주지정학적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1호.

- 김성훈(2012), “초국경개발협력과 북한의 나선지대: 하위지역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한(2014), “북중 초국경 협력의 지속과 변화 - 최근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韓中社會科學研究』 제12권 제4호 통권33호.
- 김수한(2014), “최근 북중 접경협력 동향과 관련 법제 분석”, 『INChinaBrief』, 인천발전연구원.
- 김영순(2008), “두만강유역개발의 특성과 국제협력의 개발과제연구 -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중심으로”, 『商業教育研究』 제21권
- 김원배 외(2005),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 지역의 대외전략”, 국토연구원.
- 김유호(2012), “북한의 개혁개방정책과 중국의 역할”,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교안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종규(200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교를 통한 아시아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동북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김천규·이상준·임영태·이백진(2015), “두만강유역 초국경개발협력 실천전략”, 국토연구원.
- 김천규·이상준·문정호·김대중(2011),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김한권(2016),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림금숙(2015),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건설에 관하여”,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 만하이핑(2012), “북중관계 정리의 중요성-상생하는 북중 국경 경제협력의 미래 위하여”,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
- 박동훈(2010),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고’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 박지연(2014),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의 현황 및 시사점”, 『수은북한경제』 2014년 겨울호.
- 박희진(2011), “북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의 유사성 비교: 불안정한 동북아 평화구도와 양국간 경제협력의 한계”, 『편화학연구』 2011년 제12권 3호.
- 변창구(2008),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지역통합: 평가와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제4호 통권49집.
- 변창구(2010), “구성주의 이론에서 본 ASEAN의 정체성과 지역통합”, 『대한정치학회』 제18권 2호 .
- 송은희(2006),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자연적 경제권(NETs)”,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
- 신범식(2013),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 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 지역 정치”, 『국제정치논총』 제53집.
- 신범식(2014),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합의”, 『JPI정책 포럼』 No.2014-08.
- 심의섭·이광훈(2001), “두만강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연구』 제 01권 06호.
- 양운철·유현정(2012), “창지투 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종연구소.
- 우영자(2011), “최근 중·북 경제협력의 실태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 원동욱 외(20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원동욱(2011), “북중경협에 빛과 그림자: '창지투 개발계획'과 북중 간 초국경 연계개발을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 윤승현(2015),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참여방안”, 『LHI Journal』.
- 윤황·전형권·이소영(2015),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분석: 광역두만강개발 계획(GTI)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1호.
-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남영(2002),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입지 특성과 지역구조”, 『대한지리학회지』 제37권 제4호.
- 이숙자(2010), “최근 북한의 경제특구 재추진: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POSRI경영연구』 제10권 제2호(포스코경영연구).
- 이영훈(2011),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 『나라경제』 제13권 제4호.
- 이정(2015),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무역관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학 석사학위논문.
- 이정훈(2014), 『NAFTA이후 미국-멕시코 초국경 생활·경제권 형성과 동북아에 대한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 이종식(2012),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중국 관계의 변화와 함의”, 세종연구소.
- 이평규(2011), “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경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이해정(2015),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 강화된 한중관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달성 기반으로 활용하자”, 제 15-30호.
- 임결(2013),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개평(2013), “2000년대 후반 북중 경제협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동명(2011), “중·북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동향과 전망”, 국토연구원, 『중국의 국토개발과 한중 협력 특집』.
- 장홍석(2012), “중국의 두만강 개발 사업을 통해 본 북중 협력과 그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성(2011), “두만강유역개발과 환경보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조명철(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장환(2014), “북중 초국경 협력 현황과 시사점”, 『INChinaBrief』, 한신대학교,

08.18

- 최수영(2015), “‘일대일로’ 전략과 한·중 협력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12월호.
- 최영진(2012), “환동해권 지역사회의 상호의존과 견제: 체제이행국가 접경지역의 대외경제교류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3호.
- 최우길(2010), “중국 동북진흥과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개발계획: 그 내용과 국제정치적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 최재용·이은재(2005), “두만강유역 환경협력체 구상방안: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 최철호(2011), “북중 관광 협력의 현황과 전망”, 북한경제리뷰, 10월호.
- 태향화(2009), “북중 나선 - 훈춘경제협력구 건립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필지봉(2014),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및 경제협력 실태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4), “중국내 북한 노동자의 입국 현황과 시사점”.
- 홍익표(2001), “북·중 경제협력과 창지투 개발계획”, 『북한경제리뷰』 제9월호.

3. 기타

“북 황금평·나선 경제특구지역”,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59608>, 2012.08.15

“[외교부 카드뉴스]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http://blog.naver.com/3_year_plan/220645208595, 2016.03.04.

『중국어 문헌』

1. 단행본

陈才·袁树人(1996), 『东北亚区域合作与图们江地区开发』, 长春·东北师范大学出版社.

崔龙鹤(1994), 『亚太时代与图们江开发』, 延吉·延边大学出版社.

李铁立(2005), “边界效应与跨边界次区域经济合作研究”, 北京·中国金融出版.

李钟林(2006), 『图们江地区开发展望』, 延边大学出版社.

马璠(2002), 『区域主义与发展中国家』,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王胜今·于潇(2006), 『图们江地区跨国经济合作研究』, 长春·吉林人民出版社.

2. 논문

陈才(2002), “图们江地缘经济区发展对策研究”, 『东北亚论坛』.

丁斗(1998), “图们江和澜沧江-湄公河增长三角:次区域经济合作的一种研究”, 『战略与管理』.

冯革群, 丁四保(2005), “边境区合作理论的地理学研究”, 『世界地理研究』 3月第14卷.

郭文君(2009), “图们江区域合作开发中延边经济发展战略研究”, 延边大学博士学位论文.

何莉环(2008), “中国-东盟自由贸易区背景下的广西边境贸易发展研究”, 中南民族大学 硕士学位论文.

黄征学(2013), “中国边境地区发展面临的问题及对策建议”, 『发展研究』.

- 姜永铭(2009), “跨国区域经济合作与发展研究”, 吉林大学 博士学位论文.
- 焦朝霞(2014), “近期中朝边境经济合作的特点及趋势分析”, 『通化师范学院学报』第35卷 第5期 .
- 金哲·卞晶(2012), “朝鲜 ‘国家经济开发十年战略计划’”, 『辽东学院学报:社会科学版』, 第14期
- 黎鹏·杨宏昌·王勇(2014), “区位优势视阈下中国-东盟沿边跨国区域合作发展研究”, 『广西社会科学』.
- 李铁立(2004), “边境效应与跨边界次区域合作研究”, 东北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 李铁立, 姜怀宇, (2004), “边境区位优势、边境区经济合作的理论与实践-以辽宁省-朝鲜边境地区经济合作为例”, 『人文地理』, 12月 第19卷 第6期
- 满海峰(2009), “新时期中朝关系定位与中朝边境地区经济合作发展”, 『辽东学院学报: 社会科学版』.
- 欧建锋(2013), “跨区域国际经济合作及中国的对策”, 『国际经济合作』第5期.
- 苏曼利(2010), “图们江区域多边合作模式研究”, 长春工业大学 博士学位论文.
- 汤碧(2007), “跨区域国际经济合作的发展与我国策略”, 『国际经济合作』第1期.
- 王禹(2012), “中国改革开放后延边州与朝鲜-韩国交流合作关系研究 - 以图们江开放开发为中心”, 延边大学 博士学位论文.
- 夏润国(2015), “冷战后中朝经贸与边疆发展之互动研究-以鸭绿江流域为考察对象”, 延边大学 博士学位论文.
- 肖洋(2014), “跨境次区域合作与丝绸之路经济带 - 基于地缘经济学的视角”, 『和平与发展』第4期.
- 邢淑君(2014), “图们江区域开发战略中的国际合作问题”, 吉林大学 博士学位论文.

徐驰(2008), “跨境合作理论与中国参与图们江跨境经济合作研究”, 外交学院
硕士学位论文.

张蕴岭(2013), “中国参与和推动东北亚区域经济合作的战略”, 『东北亚论坛』
第1期.

张欢(2014), “中国宏观经济与地区发展不平衡关系研究”, 『现代经济信息』

3. 기타

“中国划定新经济地图13个区域规划升为国家战略” 人民网, <http://finance.people.com.cn/GB/12240008.html>, 검색 날짜:2016.3.6.

“13个区域规划”,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JYiqJC6DqCKcHxZtu199C2AlEgGTMODJodQ_YAXe7i6zvQ7zwLRHSlH8fof_7sHctXUmKYy8_K3E0No5vRwLLq, 검색 날짜:2016.4.10.

“东北亚经济圈概况”, 东北亚论坛, http://www.weihai.gov.cn/xw/zhuanli/neaes/cn/view_news.asp?id=8, 검색 날짜:2016.4.14..

第三届中朝经贸文化旅游博览会丹东开幕, 中国经济网, http://www.ce.cn/xwzx/gnsz/gdxw/201410/16/t20141016_3717400.shtml, 검색
날짜:2016.5.6.

图们市: 中国(图们)朝鲜工业园项目, 吉林省县域网, <http://www.jlxy.gov.cn/news.aspx?id=9490>, 검색 날짜: 2016.5.7.

中朝边界鸭绿江望江楼和文岳水电站开工, 中国电工网, <http://www.chinaet.net/news/201603/82440.html>, 검색 날짜:2016.05.02.

“中俄朝在交界地带筹建无国界旅游区” 环球网,
<http://world.huanqiu.com/article/2015-02/5671291.html>, 검사 날짜:
2016.04.29.

长珲城际铁路,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item/%E9%95%BF%E7%8F%B2%E5%9F%8E%E9%99%85%E9%93%81%E8%B7%AF?fr=aladdin>, 검색 날짜: 2016.5.4.

“罗先特区”, 互动百科, <http://www.baike.com/wiki/%E6%9C%9D%E9%B2>

%9C%E7%BD%97%E5%85%88%E7%BB%8F%E6%B5%8E%E7%89
%B9%E5%8C%BA%E5%9C%B0%E5%9B%BE , 검색 날짜: 2016.4.27.

“丹东港”,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DJBSjcoUs_fsoQCNke4OUICAVC5A0cqKQ9xp9cEaPeUzNawFvFAwGDZfJxSbOeJasteSzIB1rU7AQDuGNPaO2K, 검색 날짜: 2016.5.23.

“海洋红港”,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K36kAEccqLUa2WyhZuFE5SAi_m0XVzkzqvBfb_apHQvXPj7kOYO9IKRrU3njJFizrLo0A2X9H3SATGzKxtFQVq, 검색 날짜: 2016.5.23.

“丹大快铁将开通 丹东到大连仅2小时, 沈阳网,
"http://news.syd.com.cn/system/2015/11/10/010876928.shtml ,
검색 날짜: 2016.5.14.

“辽宁省旅游业十一五发展规划”, 中国投资资讯网, <http://www.ocn.com.cn/free/200801/lyyoujiudiancanyin028.htm> , 검색 날짜: 2016.5.8.

“中朝所有旅游路线”, 欣欣旅游,
<http://lxs.cncn.com/74482/1191705> , 검색 날짜: 2016.05.07.

“东北地区振兴规划”,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1113424.htm>, 검색 날짜:
2016.05.7.

东北振兴“十二五”规划(2012), 『中国财政经济出版社』, 검색 날짜:
2016.05.7.

“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hfagUBiK-SfDyiCqL1OBKt3pkwCGv9lnd_pEB1Km_xmECzIuhFpxteNZTUFg0c57tlBhrwcn5vKh1Io2x03XLa , 검색 날짜: 2016.05.7.

“丹大快铁将开通 丹东到大连仅2小时, 沈阳网,
"http://news.syd.com.cn/system/2015/11/10/010876928.shtml ,
검색 날짜: 2016.5.14.

“2015第十二届东亚(辽宁)国际旅游博览会暨丹东鸭绿江国际旅游节”,
http://www.eshow365.com/zhanhui/html/91812_0.html , 검색 날짜:
2016.05.09.

“吉林通钢”,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UMB9OTUI3Pe1tge5PsdVNuUpMCw4-YhLxYrMoHdnkDScIly3B4Ll8z7lwPXOxewauS>

U9byde8R9KQ-OZPulp-a , 검색 날짜: 2016.05.11.
“新鸭绿江大桥” ,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link?url=zPuKPV10QPSM6rwlX4QnFnaBqzKrMarOEnsSmmRqHkcD6faeBQ2SdDAVoyBinM0pldJtGkclXIppFrXKAJK3Ha> , 검색 날짜:2016.05.17

『영어 문헌』

1. 논문

- Maurice Schiff(2002), L. Alan Winters.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Trade July 2002, I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Hettne, Björn(2002), “The Europeanisation of Europe: endogenous and exogenous dimensions”, European Integration, Vol. 24. No. 4.
- Johnson, Corey(2009), ‘Cross-border Regions and Territorial Restructuring in Central Europe,’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6.
- Robert Scalapino(1994), “Foreign Affairs”.

2. 기타

UNDP(2002), “TumenNET Strategic Action Programme. UNDP/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Portfolio| UNDP”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ourwork/environmentandenergy/focus_areas/water_and_ocean_governance/gef-portfolio.html, 검색 날짜:2016.05.17